2018 ‘Book 돋움’ 백서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
발 간 사

작년을 돌이켜 보니 도서관에 다양하고 풍성한 일이 가득했던 해였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 때의 기쁨과 감동을 다시 기억하는 일 또한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 감동의 순간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인문학 강의’에서는 김영 교수님께서 ‘성공하는 사람의 첫 번째 습관 독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힐링으로서의 독서’라는 부분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펄럭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로가 쌓이고,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독서가 힐링이 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책 속에는 마음까지 위로할 수 있는 깨달음을 이야기가 있고, 독서는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겠지요. 한편, 따뜻한 봄날 정석학술정보관 로비에서 카뮤이 4중주단을 초청하여 작은 음악회를 가졌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여러 사람들이 마음의 휴식과 더불어 감동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봄, 가을 두 번의 밤샘 독서 행사에서 만났던 많은 학생들과 그 열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세벽에 봉기진 정석학술정보관에서 학생들과 같이 보냈던 시간들. 그 자리에 같이 모여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친근감과 하나 될음을 느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보여준 열정을 통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김연수 작가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었던 일도 기억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오래 전에 ‘밤은 노래한다’를 읽으면서 느꼈던 감동이 다시 떠올립니다. 소설이 하도 생생해서 주인공이 실제로 살아 숨 쉬었던 사람처럼 느껴지고, 소설 속의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처럼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해란강이 내려다 보이는 영국도라 언덕이나 용정 거리와 같이 주인공들이 거닐었던 곳을 언제 한 번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소설의 작가인 김연수 소설가와의 만남 자체가 감격이었습니다.

학교 밖으로의 문학기행도 기억에 남습니다. 하늘을 높고 푸르던 어느 가을 날, 조명희 문학관과 이상설 생각을 거닐며 일제시대를 살아간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를 살펴보았습니다. 송수연 선생님의 설명을 듣으며, 그 당시 지식인들의 고민과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시대를 넘어서 오늘 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 행사에 같이 할 수 있어서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끝으로 참여했던 많은 학생들, 그리고 이 행사가 가능하도록 에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9년 3월 29일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장 이 병 찬
Ⅰ. 개요
1. 배경 ................................................................. 4
2. 목표 ............................................................... 4
3. 필요성 ............................................................. 4
4. 조직도 ............................................................. 5
5. 사업내용 도식 ............................................... 5
Ⅱ. 세부 추진방법 및 내용
1. ‘Book드림’ ...................................................... 6
2. ‘Book새통’ ...................................................... 9
3. ‘Book나래’ ...................................................... 11
4. ‘밤샘독서’ ..................................................... 12
5. ‘정석과 함께하는 음악회’ .................................. 15
6. ‘음악감상회’ ................................................ 16
Ⅲ. 실적 및 기대 성과 ................................................ 17
Ⅳ. 향후 발전계획 .................................................. 18
Ⅴ. 후기 및 수상작품 모음
1. ‘Book드림’ 심사후기 / 우수학생후기 ....................... 19
2. ‘밤샘독서’ 심사후기 / 우수학생후기 ....................... 29
□ 부 록
○ 2018학년도 예산현황 ........................................ 35
○ 2013 – 2018 ‘Book돋움’ 대비표 ................................ 37
○ 관련 기사 ........................................................ 43
○ ‘정석100선’ 목록 .............................................. 74
Ⅰ 개요

1. 배경
양질의 추천도서목록을 제공하여 좋은 책을 선택하는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고 독서습관 정착으로 도서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 「인하100선(選) 선정을 통한 독서 진흥 프로젝트」(2011년 ‘직원 지식창조상’) 가 2012-2013학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지정되어 「책 읽는 리더 양성 – 독서권장 프로젝트 ‘Book동물’」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2014학년도에서는 입학처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사업’으로, 2018년부터는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의 일환으로 진행하였음

2. 목표
가. 독서권장을 통한 도서 이용률 증대
나. 즐기는 독서문화 조성 및 확대
d. 독서후기 공모에 따른 글쓰기 능력 및 논리적 의사표현력 향상
라. 저자와의 소통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배양
마. 문학적 체험과 토론문화 활성화로 비판적 사고력 배양바. 도서관의 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여, 역동적이고 친근한 이미지 제고
사. 전문성과 교양을 겸비한 글로벌 스마트 인재 양성에 따른 대학 경쟁력 강화

3. 필요성
가. 영상 및 전자정보 증가에 따른 대학생들의 독서량 감소로 창의력 저하 방지
나. 소설 및 실용서 위주의 독서 선호 개선
다. 양식 선택의 가이드라인 역할 수행
라. 평생학습시대를 대비한 자발적인 독서 습관 형성
마. 학점 취득과 취업 대비에 지진 학생들에게 풍부한 학식과 교양을 지닌 멘토와의 소통 기회 및 문학적 체험 기회 제공
4. 프로젝트 추진 조직도

팀장: 김봉세 (학술정보운영팀)
부팀장: 이혜경

'Book드림'
김경모
조성필

'Book새통'
정은경

'Book나래'
김경모

'밝/language 독서'
조성필
윤재중

5. 사업내용 도식

채 등은 Leader 양성을 위한 독서관련 프로젝트
Book 독음

지도자적 역량 강화 독서
▸ 독서 권장용을 통한 아용중대
▸ 출간의 독서문화 조성&확대

자발적으로 즐기는 독서
▸ 후기 및 서평을 통한 글쓰기 능력&논리력 의사 향상
▸ 저명 인사와 소통에 의한 서상을 바탕으로 단독 배양

문화적 체험에 의한
농동적 정보 습득
▸ 문화적 체험&토론문화를 통한 간결한 비판적 사고양식 배양
▸ 견문주의 소양을 겸비한 인재의 배출로 대학 경쟁력 강화

위: LEADER

Book 드림
독서문화 확대

Book 새통
소통&만남 확대

Book 나래
창조적시각&사고 확대

밝/language 독서
독서활성화
세부 추진방법 및 내용

1. ‘Book드림’

가. 배경
: 독서 장려 활동의 일환으로 독서 경험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진행하는 독서권장 프로그램

나. 목적
1) 독서 권장을 통한 도서 이용률 증대
2) 즐기는 독서문화 조성 및 확대
3) 문학적 체험과 토론문화 형성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과 안목의 배양
4) 후기 및 서평작성을 통한 글쓰기 능력 및 논리적인 의사 표현력 향상
5) 교양과 상식을 겸비한 인재의 배출로 대학 경쟁력 강화

다. 필요성
1) 영상 및 전자정보 증가에 따른 대학생들의 독서량 감소로 인한 창의력 저하
2) 실용서 위주의 독서선호 개선 : 흥미 위주의 독서습관 현상
3) 평생학습시대를 대비한 자발적인 독서 습관 형성 필요

라. 추진일정

<1차: 하계방학>

<table>
<thead>
<tr>
<th>기 간</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2018. 6. 25 ~ 8. 26</td>
<td>독서후기 접수</td>
</tr>
<tr>
<td>2018. 8. 27 ~ 8. 31</td>
<td>독서후기 심사</td>
</tr>
<tr>
<td>2018. 9. 17.</td>
<td>발표 및 시상</td>
</tr>
</tbody>
</table>

<2차: 동계방학>

<table>
<thead>
<tr>
<th>기 간</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2018. 12. 24 ~ 2019. 2. 10</td>
<td>독서후기 접수</td>
</tr>
<tr>
<td>2019. 2. 11 ~ 2019. 2. 13.</td>
<td>독서후기 심사</td>
</tr>
<tr>
<td>2019. 2. 20.</td>
<td>발표 및 시상</td>
</tr>
</tbody>
</table>
마. 추진내용
1) 독서 후기 제출 공지
   - 정석학술정보관 소장도서(단행본, eBook)를 읽고 독서후기 제출 (1,000자 이상)
2) 독서후기 우수작 시상
   <1차: 하계방학>

<table>
<thead>
<tr>
<th>상급</th>
<th>명 단</th>
<th>상 금</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상(1명)</td>
<td>권*수 (항공우주공학과)</td>
<td>문화상품권 20만원</td>
</tr>
<tr>
<td>우수상(2명)</td>
<td>장*기 (사회교육과)</td>
<td>문화상품권 10만원</td>
</tr>
<tr>
<td>장려상(5명)</td>
<td>류*민 (컴퓨터공학과)</td>
<td>문화상품권 5만원</td>
</tr>
<tr>
<td>가작(5명)</td>
<td>신*우 (국제통상학과)</td>
<td>문화상품권 3만원</td>
</tr>
<tr>
<td></td>
<td>김*훈 (정보통신공학과)</td>
<td></td>
</tr>
<tr>
<td></td>
<td>김*빈 (한국어문학과)</td>
<td></td>
</tr>
<tr>
<td></td>
<td>박*영 (환경공학과)</td>
<td></td>
</tr>
<tr>
<td></td>
<td>김*범 (환경공학과)</td>
<td></td>
</tr>
</tbody>
</table>

<2차: 동계방학>

<table>
<thead>
<tr>
<th>상급</th>
<th>명 단</th>
<th>상 금</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상(1명)</td>
<td>김*현(언론정보학과)</td>
<td>시상금 20만원</td>
</tr>
<tr>
<td>우수상(2명)</td>
<td>김*정(교육학과)</td>
<td>시상금 10만원</td>
</tr>
<tr>
<td>장려상(5명)</td>
<td>남*민(고분자공학과)</td>
<td>시상금 5만원</td>
</tr>
<tr>
<td>가작(5명)</td>
<td>김*겸(정보통신학과)</td>
<td>시상금 3만원</td>
</tr>
<tr>
<td></td>
<td>윤*현(간호학과)</td>
<td></td>
</tr>
<tr>
<td></td>
<td>서*희(사회교육과)</td>
<td></td>
</tr>
<tr>
<td></td>
<td>임*환(정보통신공학과)</td>
<td></td>
</tr>
<tr>
<td></td>
<td>김*림(한국어문학과)</td>
<td></td>
</tr>
</tbody>
</table>
바. 효 과
   1) 독서 문화 조성 및 확대를 통해 즐기는 독서 습관 형성
   2) 독서를 통한 지적 경쟁력 강화로 취업률 향상 기대
   3) 교양과 상식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

사. 향후 발전 계획
   1) 안정적인 예산 확보로 지속적인 사업 시행
   2)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학생 교양 증진에 기여

아. 자체평가
   1) 연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수상하는 독서 매니아 층이 형성되고 있음
   2) 이공계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로 참여자 전공이 다양화되어, 보편적인 인문학 행사로서 자리매김 함
2. ‘Book새통’

가. 배경

1) 개인주의 확산으로 의사소통 능력 저하
2) 대학이 취업 준비 기관으로 전략적으로 인해, 인문학적 소양을 배양하기 어려운 현실
3) 경쟁이 심화된 사회에서 목표를 상실한 대학생들에게 삶의 방향성 제시

나. 목적

1) ‘Book새통’(저자와의 만남)을 통해 작품 및 작가와의 공감대 형성
2) 비판적 사고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3) ‘Book새통’ 이벤트를 통해 도서관에 대한 친밀감 형성
4) 후기 작성을 통해 향후 ‘Book새통’ 행사에 대한 활발한 참여 유도

다. 필요성

1) 독서를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의 저하로 인한 소외와 단절을 극복하여,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 형성
2) 인문학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나아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키울 수 있는 계기 마련
3) 유명 저자의 강연을 통해 삶의 방향성을 찾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

라. 추진일정

<1차>

<table>
<thead>
<tr>
<th>기 간</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2018. 3. 30.</td>
<td>강연자 섭외 : 본교 한국어문학과 김영 교수님 초청</td>
</tr>
<tr>
<td>2018. 4. 13.</td>
<td>강연 주제 선정 : ‘성공하는 사람의 첫 번째 습관’</td>
</tr>
<tr>
<td>2018. 5. 1. ~ 5. 8.</td>
<td>홍보물 제작 및 배포</td>
</tr>
<tr>
<td>2018. 5. 8.</td>
<td>강연 진행 (참가자 : 150명)</td>
</tr>
</tbody>
</table>

<2차>

<table>
<thead>
<tr>
<th>기 간</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2018. 4. 27. ~ 5. 21</td>
<td>강연자 섭외 : 김연수 작가 초청</td>
</tr>
<tr>
<td>2018. 7. 4.</td>
<td>강연 주제 선정 : ‘막연한 생각은 어떻게 소설이 되는가?’</td>
</tr>
<tr>
<td>2018. 9. 3 ~ 9. 10</td>
<td>홍보물 제작 및 배포</td>
</tr>
<tr>
<td>2018. 8. 20 ~ 9. 12</td>
<td>신청자 접수</td>
</tr>
<tr>
<td>2018. 9. 13</td>
<td>강연 진행 (참가자 : 210명)</td>
</tr>
</tbody>
</table>
마. 추진내용

1) 행사내용
   -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교내 및 교외 강연자 초청
   - 강연 및 대화 등을 통하여 희망적 메시지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이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

바. 효과

   - 작가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통한 참가 학생들의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
   - 도서관의 독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및 독서 동기 유발
   - 저자와의 대화를 통한 논리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 다양한 관점으로 현상을 관찰·사고할 수 있는 시야 확대
   - 독서를 통한 자기 성찰 및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 인재 양성에 기여

사. 향후 발전 계획

1) 학생들의 호기심과 트렌드를 반영한 저자 접촉
2) 'Book새통' 진행 방식의 다양화 : 북 콘서트, 토론회 등

아. 자체평가

1) 사업 추진 결과 잘 된 점
   - 본교 교내 교수님을 초청하여 수업 시간에 들을 수 없었던 주제에 대해 강연을 들음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관련 분야에 대한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다소 무거운 주제를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지루하지 않게 강연을 진행하여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음
   -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강연 주제와 행사 진행에 대해 매우 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2) 사업추진 상 예상 외 변수 등 문제점 및 애로 사항
   - 학교 규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강사료로는 유명 강사를 섭외하기 어려움
3. 'Book나래'

가. 배경
: 전자매체로 지식과 문화콘텐츠를 습득하는 학생들에게 문학의 정취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생각으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문학기행을 계획함

나. 목 적
1) 작품에 대한 이해도 및 문학적 소양 향상
2) 문학관을 방문하여 작가의 생애와 작품관을 이해함으로써 자발적인 독서동기를 부여
3) 다양한 전공분야의 학생들이 대화와 답사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기회 제공
4) 인문학적 통찰력과 창의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다. 필요성
1) 과도한 학점 경쟁과 취업 경쟁으로 건전한 인성 함양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과 타인과의 소통, 교류 제약
2) 전공서와 자기계발서 등의 편중된 대학생들의 독서습관
3) 평면적인 문학 감상에서 벗어나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 문학을 체험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라. 추진일정

<table>
<thead>
<tr>
<th>기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2018. 8. 6 ~ 8. 31</td>
<td>2017년도에 계획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행장소 예비조사</td>
</tr>
</tbody>
</table>
| 2018. 9. 6    | 포석 조명희 문학관 사전 답사  
- 소요시간 조사, 식당 예약  
- 조명희 문학관 해설 및 인문학 프로그램 장소 예약 |
| 2018. 9. 10 ~ 10. 19 | 일정 수립 및 계획안 작성  
- 배너 및 현수막 제작  
- 강사 섭외 (프런티어학부 송수연)  
- 차량 및 보험 문의 |
| 2018. 10. 22 ~ 10. 31 | 신청자 모집 |
| 2018. 10. 31   | 간식 및 물품 구입 |
| 2018. 11. 2    | 문학기행 |

마. 향후 발전 계획
1) 날씨 또는 교통상황 등의 변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한 세밀한 준비
2) 교비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 시행
4. ‘밤샘독서’

가. 배 경
: 독서권장프로젝트 ‘Book돋음’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독서 문화 증진과 이벤트를 통한 도서 이용률 증대

나. 목 적
1) 책과 함께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는 특별한 행사를 통해 학창시절 추억을 제공
2) 독서 후기를 작성함으로써 글쓰기 능력 및 논리적 의사 표현력 증진
3) 다양한 독서 행사로 도서관 이미지 제고

다. 필요성
: 도서관은 공부만 하는 곳이라는 통념을 벗어나 이벤트 행사를 통해 이용자와의 거리를 좁혀 딱딱한 도서관의 이미지를 벗고, 자연스레 독서에 관심을 갖게 하여 도서 이용률 증대에 기여

라. 추진일정
<1차>

<table>
<thead>
<tr>
<th>기간</th>
<th>내용</th>
</tr>
</thead>
</table>
| 2018. 3. 27 ~ 5. 14 | • 계획안 작성 및 일정 수립  
• 배너 및 현수막 제작  
• 행사장소 선정  
• 해당부서 협조(난방, 경비, 의약품, 기타용품)  
• 독서 후기 심사 접수 (승수면, 정영진)                                    |
| 2018. 5. 14 ~ 5. 23 | • 비교과과정 프로그램을 통한 행사 참가자 접수                                                            |
| 2018. 5. 23 ~ 5. 25 | 이벤트 행사 준비  
• 현수막, 배너 설치  
• 접수테이블, 그래피티 설치  
• 간식 및 물품 구입                                                               |
| 2018. 5. 25 ~ 5. 26 | • 밤샘독서 행사 진행(참가자 : 117명)  
• 독서 후기 제출(참가자 : 75명)                                                 |
| 2018. 5. 28 ~ 6. 1  | • 독서 후기 심사                                                                                      |
| 2018. 6. 8          | • 독서 후기 수상자 발표 및 시상                                                                         |

- 12 -
<2차>

<table>
<thead>
<tr>
<th>기간</th>
<th>내용</th>
</tr>
</thead>
</table>
| 2018. 10. 8 ~ 11. 4 | - 계획안 작성 및 일정 수립  
                      - 배너 및 현수막 제작  
                      - 행사장소 선정  
                      - 해당부서 협조(난방, 경비, 의약품, 기타용품)  
                      - 독서 후기 십사 절단 (송수연, 정영진) |
| 2018. 11. 5 ~ 11. 14 | - 비교과학 프로그램을 통한 행사 참가자 접수 |
| 2018. 11. 12 ~ 11. 16 | 이벤트 행사 준비  
                      - 현수막, 배너 설치  
                      - 접수터미널, 그래피티 설치  
                      - 간식 및 물품 구입 |
| 2018. 11. 16 ~ 11. 17 | - 밤샘독서 행사 진행(참가자: 143명)  
                          - 독서 후기 제출(참가자: 57명) |
| 2017. 11. 13 ~ 11. 17 | - 독서 후기 십사 |
| 2017. 11. 27       | - 독서 후기 수상자 발표 및 시상 |

마. 추진내용
1) 행사내용
   - 야식타임, 그래피티, 인하사랑 배지찾기등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추억 제공
   - 독서 후기를 작성함으로써 글쓰기 능력 및 표현력 증진
   - 행사참가자 우수 독서 후기 홈페이지 게시

2) 밤샘독서 우수 독서 후기 시상
   <1차>
   - 일시: 2018년 6월 8일(금)
   - 장소: 정석학술정보관 1층 로비
   - 시상 내역

<table>
<thead>
<tr>
<th>상 급</th>
<th>명 단</th>
<th>상 금</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상(1명)</td>
<td>류*민(컴퓨터공학과)</td>
<td>시상금 20만원</td>
</tr>
<tr>
<td>우수상(2명)</td>
<td>유*우(전기공학과)</td>
<td>시상금 15만원</td>
</tr>
<tr>
<td></td>
<td>최*주(교육학과)</td>
<td></td>
</tr>
<tr>
<td>장려상(5명)</td>
<td>우*로(화학공학과)</td>
<td>시상금 10만원</td>
</tr>
<tr>
<td></td>
<td>손*경(경영학과)</td>
<td></td>
</tr>
<tr>
<td></td>
<td>우*호(전기공학과)</td>
<td></td>
</tr>
<tr>
<td></td>
<td>박*우(화학공학과)</td>
<td></td>
</tr>
<tr>
<td></td>
<td>박*영(전자공학과)</td>
<td></td>
</tr>
<tr>
<td>가작(5명)</td>
<td>김*민(영여영문학과)</td>
<td>시상금 5만원</td>
</tr>
<tr>
<td></td>
<td>임*환(정보통신공학과)</td>
<td></td>
</tr>
<tr>
<td></td>
<td>이*하(연극영화과)</td>
<td></td>
</tr>
<tr>
<td></td>
<td>김*연(경영학과)</td>
<td></td>
</tr>
<tr>
<td></td>
<td>평*진(식품영양학과)</td>
<td></td>
</tr>
</tbody>
</table>
<2차>
- 일시 : 2018년 11월 16일(금)
- 장소 : 정석학술정보관 1층 로비
- 시상 내역

<table>
<thead>
<tr>
<th>상 급</th>
<th>명 단</th>
<th>상 금</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상(1명)</td>
<td>장*아(국제통상학과)</td>
<td>시상금 20만원</td>
</tr>
<tr>
<td>우수상(2명)</td>
<td>임*진(사회인프라공학과)</td>
<td>시상금 15만원</td>
</tr>
<tr>
<td>장려상(5명)</td>
<td>김*정(정치외교학과)</td>
<td>시상금 10만원</td>
</tr>
<tr>
<td></td>
<td>김*우(생명공학과)</td>
<td></td>
</tr>
<tr>
<td></td>
<td>심*인(간호학과)</td>
<td></td>
</tr>
<tr>
<td></td>
<td>이*원(신소재공학과)</td>
<td></td>
</tr>
<tr>
<td></td>
<td>한*영(화학과)</td>
<td></td>
</tr>
<tr>
<td>기작(5명)</td>
<td>유*정(간호학과)</td>
<td>시상금 5만원</td>
</tr>
<tr>
<td></td>
<td>심*주(컴퓨터공학과)</td>
<td></td>
</tr>
<tr>
<td></td>
<td>이*은(생명과학과)</td>
<td></td>
</tr>
<tr>
<td></td>
<td>김*훈(정보통신공학과)</td>
<td></td>
</tr>
<tr>
<td></td>
<td>김*현(사회복지학과)</td>
<td></td>
</tr>
</tbody>
</table>

바. 효 과
- 학창시절 추억 제공
- 도서관 이미지 제공을 통한 도서 이용률 증대
- 독서를 통한 전문지식 습득 및 정서순화로 건강한 정신을 갖춘 인재 양성에 기여

사. 향후 발전 계획
- 1회성 행사가 아닌 매년 진행되는 행사를 위한 예산확보
- 강사를 초청하여 단순한 책읽기 행사를 벗어나 문학교류의 장 마련

아. 자체평가
1) 사업 추진 결과 잘된 점
- 밤샘독서 행사 중 독서 후기, 인하사랑 배지 찾기, 퍼즐 맞추기, 그래피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됨
- 행사에 참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1차 및 2차 평균 95% 이상의 학생이 행사 진행에 대하여 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2) 사업추진 상 예상 외 변수 등 문제점 및 예로 사항
- 지정된 도서를 확보하는데 예로사항이 있었음
- 음주 후 행사에 참석하는 학생이 발생함
- 늦은 시간 행사가 진행되어 이탈자에 대한 안전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행사에만 참여하고 독서후기를 제출하는 학생이 감소함
- 수료증을 수령하지 않은 학생이 많음
5. ‘정석과 함께하는 음악회’

가. 배 경
: 수업과 과제로 바쁜 학기를 보내는 학생들에게 클래식을 감상하며 쉬어갈 수 있는 시간 마련

나. 목 적
: 학생들이 클래식을 보다 쉽고 편안하게 접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공간 속에서 친숙하게 클래식을 감상할 기회 제공

다. 필요성
: 도서관 로비에서 음악을 감상함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 제고

라. 추진일정

<table>
<thead>
<tr>
<th>기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2018. 4. 16 ~ 4. 30</td>
<td>연주단 섭외 (연주 : 카뮤이 현악 4중주)</td>
</tr>
<tr>
<td>2018. 5. 1 ~ 5. 10</td>
<td>홍보물 제작 및 게시</td>
</tr>
<tr>
<td>2018. 5. 10</td>
<td>행사 진행 (참석자 : 180명)</td>
</tr>
</tbody>
</table>

마. 추진 내용
- 연주 : 카뮤이 현악 4중주
- 연주곡 :
  1. Mozart Eine Kleine Nachtmusik, K.525
  2. J. Haydn String Quartet in D Major 1~4악장
  3. A. Webern Langsamer Satz for String Quartet
  4. A. Dvorak String Quartet No. 9 in F major, Op. 96 “American”

바. 향후 발전 계획
  1) 교비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 시행
6. ‘음악감상회’

가. 배 경
: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공연 위주의 작품을 최고급 음향 시스템으로 감상, 깊은 감동 제공

나. 목 적
: 클래식 음악감상회를 이해하기 쉬운 해설과 함께 진행 학생들의 교양 증진에 일조

다. 필요성
: 정석학술정보관 제공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친숙한 문화 공간 제공

라. 추진일정

<table>
<thead>
<tr>
<th>기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2018. 8. 1 ~ 10. 14</td>
<td>음악감상회 기획 및 섭외 (정석과 함께하는 클래식, 줄겁게 알아가기!) 진행 : 반율리 강사</td>
</tr>
<tr>
<td>2018. 10. 15 ~ 11. 9</td>
<td>홍보물 제작 및 게시</td>
</tr>
<tr>
<td>2018. 11. 9</td>
<td>행사 진행 (참석자 : 52명)</td>
</tr>
</tbody>
</table>

마. 추진 내용
- 클래식 음악감상회 : 정석과 함께하는 클래식, 줄겁게 알아가기!
  주제 : 'Why Bach? All of Bach 바흐의 모든 것'
- 연주곡 :
  1. Toccata from Toccata and Fugue in D minor BWV 565 오르간
  2. Invention No. 1 in C major 인벤션
  3. 'Brandenburg' Concerto No. 4 in G major BWV 1049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 Erbarme dich, mein Gott from St Matthew Passion BWV 244 마테수난곡
  5. Cello Suite No. 1 in G major BWV 1007 첼로
  7. Bach - Aria mit 30 Veranderungen Goldberg Variations BWV 988 골드베르크

바. 향후 발전 계획
  1) 클래식에 대한 학생들의 교양 증진을 위해 매년 기획, 콘텐츠 확보 및 지속적 시행
### 실적 및 기대성과

#### 실적 및 성과 : 투입 - 산출 - 성과 체계 / 주요 실적 / 기대성과

<table>
<thead>
<tr>
<th>투입 (input)</th>
<th>산출 (output)</th>
<th>성과(outcome)</th>
</tr>
</thead>
<tbody>
<tr>
<td>'Book드림'</td>
<td></td>
<td>중단기성과</td>
</tr>
<tr>
<td>&lt;1차&gt;</td>
<td></td>
<td>장기성과</td>
</tr>
<tr>
<td>- 참여학생 : 57명</td>
<td>- 독서후기 접수 : 62건</td>
<td></td>
</tr>
<tr>
<td>- 심사교수 : 2명</td>
<td>- 우수작 사상 : 13명</td>
<td></td>
</tr>
<tr>
<td>- 진행직원 : 1명</td>
<td></td>
<td>전문성과 교양을 겸비한 글로벌스마트 인재 양성에 따른 대학 경쟁력 강화</td>
</tr>
<tr>
<td>'Book드림'</td>
<td></td>
<td></td>
</tr>
<tr>
<td>&lt;2차&gt;</td>
<td></td>
<td></td>
</tr>
<tr>
<td>- 참여학생 : 71명</td>
<td>- 독서후기 접수 : 71건</td>
<td></td>
</tr>
<tr>
<td>- 심사교수 : 2명</td>
<td>- 우수작 사상 : 13명</td>
<td></td>
</tr>
<tr>
<td>- 진행직원 : 1명</td>
<td></td>
<td></td>
</tr>
</tbody>
</table>

| 'Book새통'   |               | 전문성과 교양을 겸비한 글로벌스마트 인재 양성에 따른 대학 경쟁력 강화 |
| <1차>        |               |               |
| - 도서배부 : 없음 |               |               |
| - 참여학생 : 150명  |               |               |
| - 강연자 : 1명    |               |               |
| - 진행직원 : 5명  |               |               |
| 'Book새통'   |               |               |
| <2차>        |               |               |
| - 도서배부 : 200권 |               |               |
| - 참여학생 : 210명  |               |               |
| - 강연자 : 1명    |               |               |
| - 진행직원 : 5명  |               |               |

| 'Book나래'   |               | 전문성과 교양을 겸비한 글로벌스마트 인재 양성에 따른 대학 경쟁력 강화 |
| - 참여학생 : 12명    |               | 전문성과 교양을 겸비한 글로벌스마트 인재 양성에 따른 대학 경쟁력 강화 |
| - 강사 : 1명    |               |               |
| - 진행직원 : 2명  |               |               |

| '밤샘독서'   |               | 전문성과 교양을 겸비한 글로벌스마트 인재 양성에 따른 대학 경쟁력 강화 |
| <1차>        |               | 전문성과 교양을 겸비한 글로벌스마트 인재 양성에 따른 대학 경쟁력 강화 |
| - 참여학생 : 117명  |               |               |
| - 심사교수 : 2명    |               |               |
| - 진행직원 : 3명  |               |               |
| '밤샘독서'   |               | 전문성과 교양을 겸비한 글로벌스마트 인재 양성에 따른 대학 경쟁력 강화 |
| <2차>        |               | 전문성과 교양을 겸비한 글로벌스마트 인재 양성에 따른 대학 경쟁력 강화 |
| - 참여학생 : 143명  |               |               |
| - 심사교수 : 2명    |               |               |
| - 진행직원 : 3명  |               |               |

| '정석과 함께하는 음악회' |               | 전문성과 교양을 겸비한 글로벌스마트 인재 양성에 따른 대학 경쟁력 강화 |
| - 참여학생 : 180명    |               |               |
| - 연주자 : 4명    |               |               |
| - 진행직원 : 3명  |               |               |

| '음악감상회'   |               | 전문성과 교양을 겸비한 글로벌스마트 인재 양성에 따른 대학 경쟁력 강화 |
| - 참여학생 : 52명    |               |               |
| - 강사 : 1명    |               |               |
| - 진행직원 : 1명  |               |               |
Ⅳ  향후 발전계획

☐ 향후 발전계획

◦ 교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 시행
◦ 'Book돋움' 세부 프로그램의 특화된 성격 및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 참여도 및 실적 증가
◦ 학생들의 호기심과 트렌드를 반영한 저자 섭외 및 다양한 방식의 'Book새통' 진행
◦ 성공적인 'Book새통' 행사 진행을 위해 유명강사 섭외
◦ 많은 학생들이 함께 한국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문학기행으로 진행
Ⅴ 행사 후기 및 수상작품 모음

1. 'Book드림' 심사후기 / 우수학생후기

1-1. 하계방학 독서후기 공모

가. 심사후기

내가 읽은 책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읽었을까? 내가 읽고 옷돌, 감동받은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도 그랬을까? 내가 화나 보였던 부분에서 그들도 이렇게 했을까? 혼자만의 책읽기 주는 즐거움도 전하고 의미 있는 것이지만, 내 독서경험을 타인과 나누고 공유하는 즐거움도 만만치 않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 학생들이 읽은 책에 대한 독후감을 읽으면서 유난히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한편 한 편의 글을 읽어가는 과정이 각기 다른 색깔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들을 만나는 것처럼 느껴졌고, 공통의 관심사인 책을 두고 대화하는 것과 같이 씽씽한 재미가 있었다.

문학부터 실용서까지 다양한 책을 다양한 관점과 시각으로 읽어낸 글들이 많았다. 책에 임방적으로 끌려가기보다는 책과 일대일의 대화를 나누고 그 결과물을 녹여낸 글들이 대부분이어서 읽는 재미가 상당했 다. <다리 건너 저 편에>를 읽고 쓴 권희수 학생의 글은 소박하지만 진정했으며, 소설과 삶을 보는 시각이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최우수상으로 뽑았다. 돌아오는 겨울 방학에는 어떤 책을 읽은 어떤 학생들과 만날 것인지, 별씨부터 궁금하다.

프런티어학부대학 송수연

본교 정석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관련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에게 책과 함께 하는 즐거움과 보람을 알려주는 전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 동안 열리는 독서감상문 대회는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학생들이 짠 책을 하고 그 결과물을 한 편의 글로 제시하는 행사이지만 독서의 저변을 넓히고 책읽기의 재미를 알리는 데 큰 뜻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계 방학 독서감상문 대회에 접수된 글들은 대학생이 작가의 개성으로 무장한 글이 많았으며, 독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느낄 수 있어서 의미 있었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방학 동안 읽은 책들이 학생들에게 좋은 거 miễn이 되어, 자신과 세상을 향해 더 쭉行驶게 나아 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프런티어학부대학 정영진
나. 우수학생 후기

1) 최우수상
   가) 항공우주공학과 권*수 (대리 건너 저편에)

   캐리 폴슨과 아니스트 헤밍웨이의 공동점이라면 월까. 둘 다 미국 출신 작가지만 다른 나라 배경의 이야기를 맛깔나게 써낸다는 것. 그들의 소설을 읽고 나면 공통적으로 남는 여운이 있다. 아주 가는다란 바늘봉치로 배골을 찌르는 듯이 책을 덮였음에도 전조하는 현실적인 감각이 바로 그것이다.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영양대에 의한 청년의 사투는 마치 내가 낚싯줄을 몸에 감고 손가락이 끝어지려 잡아당기고 있는 것처럼 강력한 물임을 끌어내고, 캐리 폴슨의 <손도끼>에서 주인공 브라이언이 무인도에 표류해 거대한 손목에 뜨발로 견인차일 때는 내가 다 청자가 끌어질 것 같다.이 소설 <대리 건너 저편예>는 그 거부하고 상어도 거부할 수 없는 강제적인 물임감을 독자들에게 한가득 떨어진다.

   소설은 멕시코 쥬아레스시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거의의 부량아 마니는 강을 건너 미국으로 망명하는 골을 꾸며 구결과 도망을 일삼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던 중 지갑을 소매지기하려 집안한 것을 계기로 로버트와 만나게 된다. 로버트는 결모습은 자로 천 년 찬 듯 척재되어 있지만 전쟁에서 입은 정신적인 상흔으로 허리라도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미국 군인이다. 그들은 딱 세 번 만난다. 마니가 술에 취한 그의 지갑을 훔쳐나간다는 것으로 한 번 형질 회상으로 들어가는 로버트를 마니가 졸린 듯 따라 들어가며 또한 번, 술 취해 토를 하고 있는 로버트를 마니가 발견하며 마지막 한 번. 그들은 이 세 번의 만남 동안 이 럴다 한 대화 한 번을 하지 않는다. 마니는 다다르 그를 통해 배를 길지 않고 또 미국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에 그를 따라다니고 로버트는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기에 그런 마니를 내버려둘 뿐이다. 돌턴상반된 삶의 태도는 여러 차례 보여진다. 로버트는 의무적인 섭섭을 위해 달걀을 조각조각 조개 먹고, 마니는 양을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먹기 위해 식당에 있는 기름진 음식을 똑같이 맛을 구겨 넘는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다른 부류인 동시에 서로에게 가장절실한 것들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마지막 만남에서 로버트는 깔에 젖어 죽어가며 마니에게 지갑을 주고 다리를 건너 미국으로 가라고 한다. 마니는 자기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다고 웃부짖는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니가 로버트가 주는 돈을 거부한 장면이었다. 로버트는 마니에게 살아남으라고 중얼거리며 눈을 감는다. 죽은 전우들을 구하지 못해 골두를 놓은 그의 죽음은 마니를 도와주므로써 비로소 해소되었다. 마니는 경질이 와 여덟 줄이 없이 피 묻은 지갑을 들고 도망친다. 그곳으로 갔었던 다리 건너 저편으로, 우연히 만나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 혔어진 이 들의 서사를 캐리 폴슨은 경험에서 우려나오는 풍부한 묘사와 눈길을 고는 미국인의 색채를 바무레 써 내려간다. 이 책을 읽으며 <노인과 바다>가 따로온 이유는 아마 두 소설 모두 한 장면 한 장면 살아 숨 쉬는 듯 생동하기 때문일 것이다. 등장인물이 적고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어 서술되지만 마니가 팔을 뻗어 다리 말로 멀어지는 지폐를 잡으려 허무적절 때면 내 손등도 덜달아 움직한다. 아마 이 책을 읽으면서 몇 번은 그런 것이었다.

   소설에서의 현장감은 독자에게 있어 두 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 번째로 읽는 순간의 재미가 있다. 캐리 폴슨은 책 표지에 그려진 그림을 잇게 만드는 몇 안 되는 작가이다. 나는 이 소설을 빠른 비트의 음악이 흘러나오는 페스트포드정 스피커 아래에 앉아 읽었지만 상심 분도 안 돼 마치 장르를 읽고 있었다. 요즘 같이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널리는 시대에는 영화 관객들이 필린 스피커 소설조차 사람들의 눈을 싱 삶을 이상 불어들여지기 어렵다. 이렇게 살아 숨 쉬는 소설이야말로 아쩌면 영화나 텔레비전에 매인 사람들들의 시선을 돌려세울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로는 책을 읽고 난 다음의 여파이다. 이책 페이자가 안 되는 짧은 소설 이니만큼 읽고 나서 금방 잊혀 질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오히려 이 소설을 읽고 난 뒤에 나는 그 어 느
때보다 미국에 대해 회의감을 갖게 됐으며 마니가 아까먹던 토폴리스라는 땅을 외국 어느 마트를 가던 첫
계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가까운 곳에서 마니와 로버트를 보기도 했다. 늘 음모를 긴장시킨 채
살아남기 위해 어둠을 턱아 재빨리 움직이던 마니는 압박감을 넘어 탈북한 어린아이들과 겹쳐 보인다. 그들에게는 과연 전우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좌절감에 시달리는 군인의 지갑조차 기회가 있었을까. 로버트가
전쟁에 가진 환멸감은 여러 장면에서 기술적이고 예술적 묘사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투우를 괴롭히며 죽
어가는 소에게 다정하게 자신의 생각을 올리는 장면은 작가가 가장 음울한 상태일 때 써 내려간 부분이
아닐까 싶다. 붉은 색채가 몇 번이고 겹쳐지는 듯한 느낌은 책을 덮고 나서도 간헐적으로 머릿속을 점씩했
다. 까만 소가 흘러가는 피에 젖어가는 참전병의 고생사가 묵명을 턱 막고 내려가지 않았다. 로버트의
광기에 투영된 작가의 깊은 호소에 책의 표지에 닿은 손가락 꼬트만까지 뜨끔한 느낌이었다. 전쟁이 한
사람에게 남기는 정신적인 폐해는 그 어느 것으로도 무마할 수 없었다. 로버트의 영혼은 그가 죽은 전우들
과 알아서셔야 비로소 짐을 내려놓는다.

<다리 건너 저편에>는 1997년에 출판된 2018년인 지금에는 우리나라에서 읽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소설이다. 계리 폴슨이 청소년에게 유독 사랑받는 작가라는 인식도 있을 뿐더러 <손도끼가>가 전 세계적
인 히트를 친 덕에 다른 작품들이 과소 평가받는 까닭도 있다. 하지만 나는 <다리 건너 저편에>야말로 우
리나라 사람들이 깊게 공감할 수 있는 소설이라고 느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망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애와 전쟁의 상호에 고통 받는 군인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가? 계리 폴슨의 단단한 필력과
풍부한 배경묘사로 다가오는 난선 나라의 익숙한 상황에 우리는 몰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소설은 일
센터미터도 되지 않는 두께로 바(paren 데인의 일상에 손쉽게 침투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다. 누구든 정식학
술정보관 책장에서 이 책을 발견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집어 들어 몽상한 일상에 찢는 듯한 활기를 더하
기를 바란다.

2) 무수상

가) 사회교육과 장‘기 (밖에넘어)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는 중이다.’ 비단 이 책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
곤 한다. 나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 동물, 식물까지도 생명은 지닌 모든 것은 죽는다. 그게 언제인
지는 모르지만, 그 누군가도, 언제가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래서 죽음은 항상 숨과, 어렵
고, 두려운 것이다. 그리고 주인공은 그러한 죽음 앞에서 누구보다 더 크게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
재이다.

주인공은 비운의 사고 후에 사람들의 죽는 날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 다만 주인공은 자신의 등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의 죽는 날만을 알 수 있다. 불행인지 축복인지 모르며 이 능력을 통해 생명이
다 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던 이 주인공은 우연히 마주친 저승사자를 통해 일종의 범죄를 알
게 된다. 하루에 죽어야하는 사람의 수는 정해져있고, 자신이 누군가를 살리려고 죽지 않아도 될 다른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의 죽음을 보며 주인공은 자신의 선의로 했던 일이
일종의 ‘폭탄’이 따가움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 밖에 없었던 그 사고에서 마주쳤다. 자신과 같은 ‘보는 자’의 존재를 찾기로 마음을 먹으며 이야기는 끝이 난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먼저 죽음이라는 시한폭탄인 누구에게 가더라도 이상한 게 아니며, 어떻게든 사고 없
는 여행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느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든 사고 없는 일들을 자주 마주친다. 당장 내
앞에서 횡단보도의 전호가 빨간 불로 바뀌는 것도, 사실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어렵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에도 우리 일은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는다. 조금 일찍 나가기도 하고, 가급적 달리기도 하면서 만이다. 그렇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과는 조금 다르다. 예상치 못한 일을 바로잡을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책에서 보여준 어쩔 수 없었던 많은 죽음을 보며, 저자 내가 언제 죽더라도 창기하지 않도록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두 번째로는, 한 챕터를 통해 우리가 노인과 아이의 죽음을 대하는 양면적 태도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만든 챕터는 바로 이 부분이다. 주인공은 자주 가던 식당 주인의 어린 아들의 등에서 우연히 1이라는 숫자를 보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리고 결국 이 아이와 친구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죽기에는 이런, 아직 죽어서는 안 되는 어린 아이'가 주인공의 생각이었고 그렇게 그 아이와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이유이다. 하지만 죽어하는 사람의 수는 정해져있다는 일종의 법칙에 의해, 경로당의 노인들이 단체로 신중특에 걸려 사망하게 된다. 이 때 주인공은 '죽기에 이르는 이르다'와 같은 생각은 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으로 인해 누군가가 죽었음을 충격을 받을 뿐이다.

우리는 실제로 아이의 죽음을 노인의 죽음보다 무거운 일로 느끼곤 한다. 아이들의 죽음에는 긍정적인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노인의 죽음에는 '복 있는' 등의 긍정적인 수식어를 붙이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아이의 죽음에 있어 '차라리 나(노인)를 데려가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 정말로 노인이 죽는 것이 아이가 죽는 것보다 더 나을까? 언제나 죽을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갑론다. 아마 죽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산다는 것은 나이가 붙으면서 모든 생명체가 지닌 기 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죽어가는, 죽어 마땅한 사람도 없다. 간혹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인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인간인가에 관련된 것이지, 아이에 관련된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의 죽음은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아마 노인의 죽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노인이 살을 잘했다고, 더 이상 그 사람이 살아 숨쉬며 대화하고, 웃고, 우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없다. 노인 또한 아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았을지도 모른다. 그런 데 왜 우리는 노인의 죽음을 당연하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받아들일까? 아마도 사예에 모두의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을 잊고, 노인은 죽이는 것이 더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는 것인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노인이 되었고, 나는 아직 더 살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많아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기에 죽어 가게 된다면. 그리고 나를 아는 누군가가 단지 내가 고통스럽게 죽지 않았다고 해서 나의 죽음을 '복이 있는 죽음이다'라고 표현한다면 나는 매우 슬프고 헤(EXIT)할 것 같다. 그리고 그저 아프지 않은 모습으로 죽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싶지는 않는다. 여기서도 말했듯, 죽음은 어렵지 않는데 원인을 알기 어렵지만 마지막 모습이 그저 '복 있게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직 나에게 너무 헤.plist한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나의 주변 사람들에 떠날 때 아프지 않고 떠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지만, 그에 앞서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하고 싶었고 어떤 것을 한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었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잊지 않고 보 내드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 교육학과 김성종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따뜻한 위로의 기적

종이.Utc새가 그리워지군 하는 요즘이다. 우리는 손가락 글의 작은 음직임만으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책을 들고 닦지 않아도 작은 화면 속에 한 권의 책을 담아 언제 어디서나 보 수 있는 편리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물론 편리함이야 이후 말할 수 없지만, 가끔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느낄 수 있는 종이의 질감이이나 종이 특유의 낯새가 그릴을 따라가. 필자는 그 그림을 꺼내 홀린 듯 도서 관에 가서 책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주리소설을 줄거 읽기에 편소로 좋아하는 허가사노 게이고 작가의 책을 찾아가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책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게이고 작가답지 않은 제목이기 때문이다. ‘기적’이라는 단어는 주리소설의 대가답게 무엇인가 섬뜩한 느낌을 주었던 게이고의 기존 작품들과는 다른 느낌을 주었다. 그동안 보았던 작품들과는 다른 느낌의 책에 강한 호기심이 발동했고, 필자는 의아함을 감출 수도 없이 책장에 넣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이미 페하가 되어버린 나미야 잡화점에 세 명의 좀도둑이 들어오면서 일어나는 기묘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이다. 30년 전의 세계와 현재 사이에서 편지가 오가는 말로 쉽사리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저자는 가슴 속에 깊이 아담두었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고민거리의 편지에 적어 보내는 것이다. 과거의 편지를 받게 된 좀도둑들은 호기심으로 장난이 섞인 답장을 쓰기 시작하지만 점차 상대방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저자는 경청의 힘이 얼마나 달달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누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든 것은 말하는 이에게 열창한 힘과 용기를 준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고민이라는 장벽과 결정이라는 갈림길에 마주한다. 하지만 장벽을 넘어서고 갈림길을 선택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이 때 우리는 제 3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 자신이 어떠한 결을 가야할지 정답을 묻는다. 그러나 제 3자가 고성 끝에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더라도, 결정에 참고는 할지언정 결국 우리의 성장자로 선택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누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는 전문상담사처럼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길 바라서가 아니다. 아마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고민거리를 귀 답아 들어주던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을 주기 때문이다. 책 속에 등장하는 연인의 시한부 선고로 갈등과 올림픽 연습이라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던 편성 국가대표선수인 시즈코나 생애 가족구간과 유전자이라는 선택지에서 무엇을 선택해야할지 몰라 고민하는 가수로서 역시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시즈코와 가스로는 연인의 갈등과 올림픽 연습, 생애가 가족구간과 유전자 등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할 의미에서 편지를 보낸 것이었다. 어째서 편지를 쓰면서도 이미 마음속으로는 정답을 정해놓았을 수 있다. 그들은 저자 자신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줄 누가가 필요했기에 편지를 보냈던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경청의 힘은 누가에게 큰 힘을 주고 위로가 된다. 그렇게 하여 상대방과 눈을 맞추고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소한 행동이 어떠한 해결책보다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다.

서두에서도 말했듯, 우리는 날로 발전하는 기술 덕분에 너무도 편리하고 풍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편리한 삶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람들 간에 정서적인 유대감을 감지 못하고 고립되어가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즉, 사람들 간의 거리가 점차 멀어지고 소통의 부재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나미야 집화점의 기적’ 속에서 느꼈던 따뜻함이 아닐까. 상대방을 통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음성을 들어주고 위로를 해주면서 따뜻함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도움의 손길이 갱질할 때 자신의 고민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 바로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고민해주는 것이 자세가 우리에게 따뜻한 위안이 된다.

따라서 ‘나미야 집화점의 기적’이라는 책 제목처럼 조그마한 나미야 집화점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를 향한 위로가 30년이라는 시간을 거스를 정도로 영장난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상대방의 고민에 대해 진심어린 위로만으로도, 아니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절망에 빠진 누군가가 슬픔을 닦고 없앨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그동안 이행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힘을 주고 위안이 되는 사람이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따뜻함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작은 배움을 행하고자 한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따뜻한 위로로 기적의 연쇄가 일어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1-2. 동계방학 특수후기 공모

가. 심사후기

"행사가 거듭될수록 향상되고 발전해 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어 버거워도 기쁜 심사였다. 어쩌다 우연처럼 나타나는 구원자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각자가 양심적이자 자기 삶의 구원자가 되는 결말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강자에게 기대하거나 도움을 바라기보다는 약자들 사이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은 어쩌면 영화같은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근현대사는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운동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프런티어학부대학 송수연

나. 우수학생 후기

1) 최우수상

가) 언론정보학과 김현 (임플란트 전쟁)

한 명의 영웅을 넘어 
‘임플란트 전쟁’ 를 읽고 -

몇 년 전의 일이다. 엄마가 임플란트를 했다. 50대 중반이 되도록 빠지지 않은 우치 때문이었다. 잇몸 반자리를 막는 가짜 치아 한 개에 삼백만 원이 홀짝 넘는 가격이었다. 치과에서 낸 건적서를 들여다본 엄마가 임플란트 몇 개 하다가 살림 거들 나겠단 말을 농담처럼 했고, 이 책에 등장하는 치과의사들도 비슷한 맥락의 말을 한다. 이 환자의 입 속에 볼 수 한 대 없이 들어있었습니다.

《임플란트 전쟁》은 유디치과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고광욱 의사가 썼다. 유디치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뜻이 맞는 치과의사들이 전국 단위로 모여 함께 결성한 네트워크다. 이 책은 유디치과 소속 의사들과 치과의사협회 사이에 별어진 지난 10년간의 싸움을 치열하게 기록하고 성찰한 내용을 담았다.

처음 치과를 개원한 의사는 긴장 같은 지역의 다른 병원으로부터 의료수가가 적힌 '표준수가표'를 받는다. '임플란트 230만원, 틈 150만원, 골드 크라운 45만원...'과 같은 식이다. 물론 이 가격은 치과의 사협회가 자의적으로 정한 액수다. 이 표준수가표에 적힌 가격보다 낮은 진료비를 받는 치과는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협회 차원의 조직적인 따돌림과 부당대우를 받는다. 저자는 임플란트 비용을 100만 원으로 책정하고 강행했던 이유로 전국 의사들에게 신성이 공개되고 조리纫임을 당했을 뿐 아니라 정치권과 연계된 아마야마한 바리에 연루되어 누명을 쓰기도 했다.

이 조직적 괴롭힘의 가해자는 향연한다. 유디치과 네트워크로 대변되는 일명 '염합니다'가 진료비를 너무 낮게 받는 바람에 치과협의회의 기간이 흐트러지고 국민의 구강건강이 위협받았다고. 그러나 진실은 그 귀여움이 있다. 담당진 진료비를 무시하고 더 낮은 진료비를 받는 등 협회의 권위를 가볍게 취급했으므로 체계적 건들 수 없다는, 문제 그대로 '그들이 사는 세상'의 성벽을 헐어뜨리려 했다는 게 진짜 이유다.

책을 뒤로 넘길수록 커져가는 스케일이 놀라다. 치과의사협회장이 국회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 전국 의사들에게 반강제로 수급한 돈을 물러 뿌리고, 한 사람이 무너뜨리기 위해 기업과 뒤에서 손을 잡는 것은 물론 공권력까지 끌어들여 유리한 만을 한다. 만약 이 책의 저자가 천년에 싸움을 포기하거나 회유 시도에 굴복했다면 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을지 모르는 일이다. 다행히도 유디치과의 지지한 싸움을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 이렇게 소설 형식을 빌린 룩포로까지 나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무력감은 이 지점에서 온다. 자신을 회생하며 진실을 밝힐 영영이 등장하지 않아 그대로 소실된 정의가 수백 수천년 넘을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며 떠오르는 한 영화가 있었다. 2017년 개봉한 영화 <재심>이다. 이 영화는 삶인사건 가해자로 물려 익은 욕심이를 한 청년의 실화를 다뤘다. 수사 실적을 올리려는 형사가 죄 없는 청년에게 갖은 고문과 구타를 가해 압박으로 겨치며 자백을 받아내고, 이 진실을 뒤늦게 알게 된 변호사 주영이 영영적인 활약을 통해 청년의 누명을 벗겨내는 내용이 골자다.

언뜻 관계없이 보이는 이 영화와 <임플란트 전쟁> 사이에는 묘하게 중첩되는 지점이 있다. 바로 한 사람의 영명에 의존하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재심>의 주인공 현우는 오랜 세월 누명을 쏙 채 무력하게 생활하다 변호사를 만나 구제한다. 영화는 시점일관 변호사의 동선을 쫓는다. 변호사가 지급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생각과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마침내 물질 실질 정의를 띠한 그의 송고한 정신이 어떤 통쾌함을 주는지를 첫 장면부터 끝 장면까지 집요하게 보여준다. 그의 정의로운 면모는 '저는 이 청년을 변호하려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사과하기 위해서 쳐냈습니다.' 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정점이 찍는다. 클라이막스와 같은 이 씬에서 변호사의 은총이 관객의 심금을 자극하 올린다. 결국 러닝타임 내내 강조되는 것은 변호사의 기부와 영웅적인 면모다. <임플란트 전쟁> 역시 유사하다. 고향목 의사로 대변되는 한 영영이 뿌린 정의의 싸움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폐단을 드러내고 그 주약함을 해부하려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책은 여전히 영영의 출현과 활약에 의존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재심>이 그런 열망을 흥미롭게 가스히 영상화했다면, <임플란트 전쟁>은 활착화했다는 게 아니라면 차이다.
있고, 그들의 정의로운 정신은 나 같은 보통 사람이 꽃아가기에 몇고 벗어나는 별과 같다는 사실 역시 자명하다.

문제는 이러한 서사를 마주한 우리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비탕으로 또 하나의 영웅담을 생성하는 데서 그친다면 이것은 비난받을 일이 맞다.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데 멀추는 순간, 이는 21세기 대한민국이 여전히 영웅의 탄생을 간절히 바라던 19세기 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증할 뿐이다.

편승은 쉽게만, 선두에 서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용기가 없는 우리는 영웅의 출현을 간절히 희구한다. 앞장서는 보통 수준의 담락으로는 해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폐라 불러도 아쉬울 것 없는 치과계의 적은 내부를 드러내기 위해 가시발길을 자처한 고광욱 의사는 독심은 존경스럽기까지 한다. 무엇보다 다른 의사들처럼 그날 그대로 권리를 따르고 수긍한다면 별 문제 없이 ‘한자의 입 속에 든 벌츠 몇 대 가’ 품은 여치 안에 벌 수 있었을 일이다.

하지만 대체 언제까지 한 사람의 영웅에 의존해야 하는가?

연재 임플란트가 그렇게 엄청난 가격이었으나, 삶을 정도로 요즘은 10만원대 임플란트가 훨씬했다. 이것은 당연한 흐름이 아니다. 만약 이 영웅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온몸에서탁으로 정도 이상의 돈을 지불하며 진료의자에 앉았다는 것이다. 고민해야 할 지점은 여기부터다. 최전방에서 서서 10년이나 운동으로 총알받이를 자처한 한 사람의 노고를 우리가 처음부터 함께 나눠질 수는 없었던 걸까? 한 사람이 집중포화를 맞을 일은 백사람이 나눠했다면 타격은 백분의 일도 줄고, 타격감조차 없을 일이 되었을지 모른다. 대체 언제까지 특출난 영웅의 등장과 고귀한 희생을 바라야 하는 걸까?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정의의 구현이 불가능한 걸까?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며 마침내는 체제의 수호자가 되버리고 마는 이 과정을 벗기 위해서는 대체 어떤 방식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걸까?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다. 어디나 나타날 슈퍼 히어로를 기다리기보다 그렇 우리 모두가 영웅이자 앙심자가 되면 된다. 어느 사회든지 강자는 소수이며 악자는 다수다. 그러나 대개 이 소수가 다수를 갖추는 데는 구조가 보편적임을 상기한다면, 우리는 다수의 힘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강한 상대에 대항하기 위해 악자들이 가장 먼저 취하는 행동이 새로운 패턴을 가진 스크럼을 짜는 일이다. 악자 개개인이 모여 집단을 이루면 강자가 못지않게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우리는 이미 그런 행동을 통해 불의한 권력을 물어낸 경험 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가 새로이 획득한 진리는, 무수한 악자가 존재하는 이 사회는 한 사람의 판단이나 결정이 아닌 다수의 연대와 화합을 기반으로 한 공존 위에서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런 사회야말로 또 다른 악자의 탄생과 물력은 제대로 굴레를 벗기 위해서는 대체 어떤 방식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걸까?

영웅의 일레시성 위에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곤란한 유대를 바탕으로 얻은 공동체에서의 말이다.

우리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영웅, 한 사람의 흰돌이나 임직원의 탄생을 바랄 것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끼리 연대하고 공생하는 새로운 푸른 것을 찾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일 것이다. 이 공동체 안에서야말로 진짜 주체가 되어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 명의 영웅이 등장하기만을 바라며 숨죽이는 것은 또 다른 희생의 서사와 공허한 백수갈채를 날을 뿐이다. 그러나 다수가 모여 한 목소리로 정의와 앙심을 부르짖는다면, 식 년이 걸린 고광욱 의사의 싸움은 일 년도 걸리지 않았을지 모른다.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무슬림하고 있는 진실을 들려내는 일도 마냥 불가능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변화의 힘은 비범한 한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변화를 열망하는 우리 개개인의 각성과 연대에서 출발한다. 이제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말이다.
2) 우수상

가) 교육학과 김성철 (우리는 달빛에도 걸을 수 있다)

평범한 일상 속, 우리는 빛나는 주인공이다

우울한 청춘의 요즘, 졸업을 1년 앞두고 모든 일상이 무로하게 느껴지곤 한다. 내 자신이 한없이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고,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이리저리 휘젓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부정적인 생각은 커져만 갔고, 사소한 일상의 모든 것들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왜 이러면 필자의 일상은 재미없고, 지루하기만한지 않이 감감하게 느껴졌다. QUICK 이사 일상의 귀찮음을 느꼈던 어느 날, 우연히 '우리는 달빛에서도 걸을 수 있다'라는 책을 발견했다. "우리가 달빛에서도 걸을 수 있다고, 내가?" 필자는 놀란내를 하며 빼孓여진 입을 중얼거며 책을 잡아 들었다. 지금 둘어보면 필자는 단순히 그 책을 선택한 것이 아닐지 모른다. 어쩌면 위안처가 필요했던 필자는 책을 통해 위로의 목소리를 들고 싶었던지 모른다. 나 자신은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힘을 주길 바랐다. 그리고 필자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저자는 필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었다.

이 책의 저자는 KBS 인간극장의 방송작가로 일을 했던 고수리작가이다. 인간극장은 평범한 이웃들의 일상을 전달하는 다큐 미니시리즈로, 특별한 것 없는 우리의 일상을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일상 속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저자는 역시 인간극장의 방송작가 일을 하면서 일상의 여러 순간들을 담하던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이를 토대로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삶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저자는 우리의 모든 삶이 드라마이며, 삶의 무대인 주인공이 아닌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우리는 가장 평범한 주인공이며, 현재는 인생의 드라마를 찍고 있는 과정이라고 했다.

작가의 일종 프리뷰라는 작업이 있다. 피디가 찍어낸 영상을 글로 풀어서 문서화하는 일로, 단순한 틀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이다. 저자는 아무리 똑같고 틱다한 일상 속에서도 결정적인 1분이 있다고 했다. 필자는 아무리 머릿속으로 지난날을 천천히 되짚어보아도, 일상 속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1분을 찾기 어려웠다. 그리고 긍정이 생겼다. 정말 마음을 올리고 결정적인 1분이 존재하는지 말이다. 매일 깃바퀴처럼 굴러가는 일상이 지겹고 답답했던 필자는 빛 일주일만 일상을 직접 프리뷰해보기로 했다.

스마트폰을 통해 필자의 사소한 일상들을 영상으로 남겼고, 영상을 들여다보면서 필자의 말과 행동을 나토에 메모했다. 1월 20일 보름달이 완하게 길을 밝혀주던 날, 필자는 동기와 자취방에서 간단히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작은 창문 높으로 벽에 빛나는 보름달을 배경삼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상 속 필자는 10년 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항상 행복하길 말하며 맥주잔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 순간의 필자의 눈동자는 보름달보다 밝게 빛났고, 입꼬리는 귀에 걸리듯 한껏울라 있었다. 그 누구보다 희망에 가득 찬 필자는 정말이지 행복해보였다. 아마도 맥주잔에 앞으므로 희망을 가득 담아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노는도 모른다. 그 짧은 순간은 그저 그런 일상에서 만났던 필자의 결정적인 1분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필자의 일상에서도 마음을 올리는 희망찬 1분이 정말로 존재했다.

하루 끝에 벗어나고만 싶은 지루한 일상을 부정하고, 나 자신을 그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필자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자동차의 부품공장처럼 매일 똑같은 부품을 만들고, 조립하는 것만 같은 일상이라고 생각했다. 지겹고 짜증난 필자의 일상 속에서도 반짝이는 순간들이 존재했고, 그 순간의 주제는 오로지 필자 자신이었다.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인지를 알 수 없는 삶은 계속되지만, 저자의 말처럼 우리는 삶의 주인공으로서 일상 속 인간의 드라마를 찍고
있었다. 일상은 우리에게 무의미하고 하찮은 것이 아니었다. 순간순간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저자는 어린 시절, 한밤중의 피크닉을 즐gomery 하니라고 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바이면 엄마와 동생과 함께 아버지를 피하기 위해 피크닉을 떠났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답답하고 절망적이었던 순간들이지만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았을 때, 저자에게 가장 그리운 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피크닉을 떠난 날이었다. 엄마와 동생과 함께했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그 때의 절망적인 순간은 아름답게 묘사하는 저자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필자의 평범한 일상도 미래에는 갑작 선물로 다가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 평범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고, 학교 후문에서 점심을 먹고, 도서관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지겨운 일상도 시간이 지나 돌아켜보면 너무도 소중하고 진짜 나날들임을 깨달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다짐했다. 사소한 일상의 순간들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그것을 가슴속에 깊이 담아두기로 말이다. 서호관 3층의 강의실 모양, 도서관 지하열람실의 답답했던 공기, 그리고 학생들로 넘쳐나는 시끌벅적한 후문가의 풍경까지.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이 모든 일상들을 아름답고 소중하게 여기며 나만의 필름에 저장해놓기로 했다.

대학교 4학년, 필자는 지금 취업의 문턱 앞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삶의 무게는 점점 무겁게만 느껴지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불투명한 미래의 필자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인지 거대한 세상 앞에 자신이 한없이 보잘 것 없게 느껴지고, 따분한 일상을 더욱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하지만 책의 마지막문장까지 읽고 난 뒤, 필자는 갑자기 이전과는 다른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마법처럼 특별한 것 없는 지극히 평범한 필자와 그런 필자의 일상도 한편의 드라마처럼 느껴지고, 소중한 순간들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무의식중에 바라던 책을 통해 얻은자의 희망의 목소리를 들었고, 위로와 힘을 얻었다. 익숙함에 속어 소중함을 잃지 말자는 말이 있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이 너무도 익숙하고 친근해서 그 것을 의미 없고 따분하다고 느끼고 있을지 모른다.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며 즐길하고, 일상의 소중함을 잃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커다란 삶의 깐득음을 얻은 필자는 마지막으로 책 속의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를 인용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어둠 속이 너무도 희미해 잘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는 달빛에도 걸을 수 있으니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아무리 일상이 여덟고 우울해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는 달빛에서도 걸을 수 있는 존재이다. 우리 모두 현재에 충실하며 소중한 일상에 감사하며 살아왔으면 한다.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물 같은 순간은 기필코 찾아올 것이며, 이러한 순간들은 미래의 우리에게도 커다란 힘을 줄 거니까.
2. ‘밤샘독서’ 심사후기 / 우수학생후기

2-1. 1차 밤샘독서

가. 심사후기

이번 심사를 통해 휴름 거듭대하는 밤샘독서가 학생들에게 책과 재미를 연결하는 매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밤샘독서는 시험, 학점, 취업과 같은 당면과 과제 앞에서 뒤로 밀리기 일쑤인 독서의 즐거움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실용적인 목적이 아니라 해도 친구들과 함께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보낸 하룻밤-이라는 추억을 선물할 수 있었다.

또 다른 학생들의 후기는 단순한 감상문의 수준을 넘어서, 책을 비판적으로 읽고 사유한 결과물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간 모습을 보여주어 심사하는 과정 또한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밤샘독서를 통해 책과 재미 혹은 책과 추억이라는 선물을 받기를 바란다.

프론티어학부대학 송수연

나. 우수학생후기

가) 컴퓨터공학과 류*민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너를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일이었다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너를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일이었다.’
책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읽어봤다고 해도 과연이 아닐 정도로 유명한 여구이다. 책과 아주 친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나조차 풍문으로 들어본 적이 있을 정도이니, 그렇게 사랑의 명으로 입으로 전해질 만큼 매우 아름다운 여구임에는 틀림이 없다.

처음 들었을 때는, 오래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는 누군가의 마음을 느끼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자식을 잃어서 떠버린 타국으로 떠나보낸 뒤 멀리 세상을 떠나 어미의 마음이었다.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내가게 어머니란 존재는 차마 세상에 존재하는 단어로 정의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을 읽으신 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느낀 절절함은 한 가지의 과장도 없는 진실이다.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의 주인공인 카밀라는 생후 6개월이 조금 넘어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아이다. 양어머니가 자식 친척 그녀는 친모에 대한 숨겨왔던 이야기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건네받게 되고, 사진 속 열일곱 살의 옛날 친모와 아무것도 모르고 울고 풀에 안긴 어린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발지에 떨어진 camellia-동백꽃-을 시작으로 그녀는 자신의 심연을 마주하게 된다. 소설은 카밀라가 자신의 출생과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밝혀기 위해 출생지인 항구 도시 진남으로 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카밀라는 사전 한 장을 들고 친모의 묻고 진남여고를 비롯해 마음을 구석구석 다니며 과거의 자취를 찾아온다. 그러나 친모와 연관된 이들은 카밀라를 외면하며 묶게 진실을 가리고, 알지 않는 것이 좋다며 그녀에게 돌아가라고 충동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더 이상 광광쩍처럼 변태하고 싶지 않다는 일념 하에 진남여고의 교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친모가 친오빠의 아이를 낳았다는 추문에 휘每日经济해야 하기 때문에 혐려는 것,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소설은 내내 미스터리를 분위기를 유지하며 진행된다. ‘친부는 사실 자신의 삼촌이었다’는 파이잔적인 설정은 듯 했으나, 곧 친부의 정체는 담임선생님이었다가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로 변모해간다. 그렇고 결국 누가 친부인가 하는 것은 안개 뒤의 더 진한 연개와 같은 모호한 형태로 나아가 벌혀지지 않고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책을 닫고 난 이후, 신기하게도 나는 결국 누가 친부이 아니 하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됐다. 이 이야기는 주인공 누군가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다. 책은 1부가 카밀라, 2부가 친모인 진의의 영주, 3부가 우리‘의 시점으로 진행된다. 자살한 진, 자살한 진의 아버지, 진의 아버지와 얽혀 죽은 노동자들, 그들의 딸... 누군의 잘못이었가 줄이가 보다 사람의 원죄가 존재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는 심연이 존재합니다. 그 심연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타인의 본심에 가닿을 수가 없어요.” 책의 핵심인문의 말씀처럼, 그들은 서로의 사이에 존재하는 심연을 알아보지 못한 채 파국에 도달한 것뿐이다.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겪어간 힘든 아득한 심연이 있고, 바로 그래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시대에서 고독은 참 비싸다. 21세기의 소통은 너무나도 손 쉬웠고 간혹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기도 한다. 각자 SNS에는 타인과 나에 대한 정보가 넘쳐난다. 진정한 고독은 산티아고 순례길이나 안나푸르나 트래킹루트에나 존재한다는 말을 놓담 살여 넘기기에도 믿어쳤다.

그래서 타인의 마음을 알고 말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것은 없다. 사랑과 사랑 사이에 존재하는 심연은 애정만으로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우리가 왜서도 서로의 심연을 완전히 뛰어넘어 타인의 본심에 닿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한다. 타인에 대한 관심과 소통이 유일한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죽은 진이, 루리디어가는 자신의 딸에게 보내는 ‘파도가 바다의 앞이라면, 너를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일이었다. 너와 해어진 뒤로 나는 단 하루도 너를 잃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는 말은, 곧 그 희망에 대한 시인이다.

또한 이러한 관점을 통하면, 소설 속에서 이 친모 ‘진의' 존재가 혹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죽은 그녀의 과거를 찾아는 사람은 더 이상 그녀와 만날 수 없는 살아있는 딸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로 왜 닫는다. 죽음이 갈라놓은 모녀는 마주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으며 그 속마음은 알아낼 방법은 더욱 없다. 하지만 카밀라는 어린 아버니의 과거와, 아버니가 낡고 사소한 소설을 통해서 그녀의 심연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길 희망이다. 생(生)과 사(死)의 문턱도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희망을 가로막을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카밀라는 세상에서 봉 떠있는 듯한 자신의 존재를 죽은 아버니와 마주함으로써 비로소 포용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아버니를 가진 딸이기 때문일까, 그래서 책을 읽으며 잡 많은 생각이 들었다. 24년을 살며 손으로 끝을 수 없이 아버니와 많은 갈등을 겪었다. 비단 나쁘지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자식과 부모가 그러할 것이다. 가끔 소중할수록 더 아깝다는 것을 마리로 알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때가 많았다.

한 번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보다 훨씬 더 깊은 심연이 부모와 자식 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각한다.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느냐며 기대하고 실망하고 원망했다. 완전히 사랑할 수도, 완전히 미워할 수도 없는 예증의 고리가 존재했다. 이제야 조금이나마 깨 닫는다. 파도가 치는 것은 바다의 일이다. 나는 타인의 바다에서 이는 그 파도를 바라볼 뿐, 파도가 아닌 그 바다를 생각함이 나의 일인 것이다. 모두에게 외면당했던 지은을 24여년이 지나 그녀의 말이 바라봐준 것처럼 말이다. 카밀라를 임신했던 어린 지은이 뱃속의 아이가 ‘나의 날개’라고 표현했듯, 나 또한 그렇게 되고 싶다. 어머니의 심연을 향하는 날개가 되고 싶다.
2-2. 2차 밤샘독서

가. 심사후기

밤샘독서의 결과물을 읽는 것은 늘 즐거운 경험이다. 학생들의 관심사와 생각을 알 수 있고, 무엇보다 세상과 자신을 읽어내는 학생들의 든든한 시선은 언제나 아직 우리에게 이토록 많은 희망이 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해준다. 누군가의 절망을 이야기하고, 누군가의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누군가는 희망을, 내일을, 빛을 이야기한다. 전자의 고통에 공감하지만, 나는 아직도 힘을 믿는다.

희망에 기대고 싶고, 그래야만 한다고 믿는다.

나. 우수학생후기

1) 최우수상

가) 국제통상학과 장*야 (소년이 온다)

계속하여 온, 소년에 대하여

전혀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서술되어 생각하면서도 새로운 느낌의 책이었다. 책 속에서 주인공이 ‘너’와 ‘당신’으로 호칭되는 것부터 그러했다. 결국 ‘너’로써 대표되는 ‘우리’의 이야기인 듯한 느낌이었다. 책의 각 장은 화자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방식도, 서술되는 시점도 모두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소설의 링미인 6장에서는 소년의 어머니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그려진다.

그녀의 독백 중에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 ‘가끔은 말이다. 내가 뒤扮演游戏한가 보다’한 느낌으로, 그까짓 사고에 몸을 빼앗겼다고...... 정대가 이 집으로 안 들어왔으면 내가 정대 찾는다고 그리 애를 쓰지 않았을 것이다......’

소설의 죽음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려는 한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가, 소년의 죽음의 원인을 결국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다. 자신이 문간채를 정대와 정미 남매에게 세를 내주어서, 그로 인해 소년과 정대가 만나 친구가 되어 결국 동호가 죽었다고 묻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만약, 그때 내가 이럴까’라는 가정을 해본다는 것을 알지만 결국 참으로 헤膻한 후회이자, 또한 방향이 한참 잘못된 화살이다. 이미 들이킬 수 없음을 알면서, 부짐없이 알면서, 그리고 실로 그것이 그녀가 스스로를 막말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면서 가슴이 아팠다. 더군다나 그녀가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조차 이해가 되기에 그녀의 독백을 읽는 나조차 서러워졌다. 문간채를 세 줄 어머니, 친구의 시신을 찾고 싶었던
소년, 그리고 소년보다도 먼저 목숨을 잃었던 정태와 정미 남매. 그들 중 대체 누구에게 죽고 있고,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사실 소년의 어머니가 탈할 곳을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굳이 스스로에게 잘못을 돌리는 것은 그것이 그나마 유일하게 자신이 바꿀 수 있었던 현실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종처럼 멘추지 않는 탄압, 그리고 그것에 맞설 힘이 없던 이들이 걸 수 있었던 희망이란 그 불행이 적어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는 미치지 않도록 기도하고 애쓰는 것, 그것뿐이지 않았을까.

총탄이 비처럼 떨어진 광장에서 소년이 정태를 잃을 때도 그러했다. 총탄을 피해 멀찌 감치 숨어있던 소년의 눈에 추측되는 이의 다리, 그리고 하늘색 체육복이 보였다. 소년은 정태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지금 나가면 죽음이라는 말과 함께 이성과 어서 붙잡고 있는 어른의 손에 저지당한다. 몇몇이 지인의 시신을 수습하고자 맨몸으로 다시 광장으로 달려나갔다가 계엄군에 의해 죽어갔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총탄 속에 자신의 몸을 내던져 가며 시신을 수습하려 했던 것은, 그 순간 그것만이 그들이 할 수 있던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총탄을 멈추 길이 없고, 그것에 맞서 싸울 힘이 없으니 죽어가는 혹은 이미 죽어버린 몸동이라고 수습하고자 자신의 몸을 내던진 것이다.

누군가는 그것을 무의미하다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이미 차가운 시체가 되어버린 그 몸뚱 이를 구하겠노라 목숨을 내던지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는가, 꾸짖을지도 모른다. 하지 만 그런 몸뚱이 하나 수습하기 힘들었던 시기였다.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무자비한 검열 끝에 차마 입 밖으로 내보지도 못하고 입 모양으로만 병곳거릴 수밖에 없었던 연극의 대사다. 엄청난 물려질 아래 검게 지워져 출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었던 책처럼, 연극의 대본에서도 역시 무자비한 검열의 홀남이 지나갔다. 책 속의 한 구절, 대본에의 대사 하나라도 자신의 바람을 고발할까 두려워 그와 전혀 상관없는 활자조차도 모조리 지워내던 때였다. 하지만 그때, 목숨 하나쯤이야 파리 목숨보다도 힘들었던 그때의 광주에서, 누군가는 그러한 검열 속에서도 예처럼게 입술을 웃었거며 이러한 대사를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당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해 장례식조사 제대로 치러 주지 못한 피해자가 많았다. 한다. 그러하여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을, 장례식과도 같은 여두운 삶을 살아가며 피해자의 가족들은 역시 많았을 것이다. 이것은 정태의 혼이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도 알 수 있었다. 동호가 애타게 찾던 정태의 시신은 이미 시신이 더이 속에서 쪼개가고 있었다. 그리고 저자는 ‘정태의 혼’이라는 가상의 시션을 통해, 그 시신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처리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정태의 시신 위에 수많은 시체가 겹겹이 열십자 형태로 쌓이고, 그 시체들이 쪼개 문드러지고, 구더기가 들끓고, 끝내는 그렇게 모여진 시체들이 다 함께 휘발유를 뒤집어쓰고 불태워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다. 그렇게 쓰레기처럼 취급받으며 방치되다 한낱 휘발유에 사라져 간 수많은 피해자들을 생각해보면, 동호의 유골이 가족의 손에 깨끗이 닦인 경우는 그나마 행운이었다.

‘행운.’

이 단어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나 자신도 서글픈 마음이었다. 차마 잊히지 않는 세월호 사건 때도 그러했다. 당연히 수습해야만 하는 시신이었지만, 그 시신을 찾은 부모는 감사하다며 목 높아 울었고, 아직 자식의 시신을 찾지 못한 부모는 그들을 보며 부럽다는
말을 건네는 상황이었다. 눈에 넘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목숨을 잃었는데, 시신을 찾아 ‘감사’하고, 시신을 찾은 그들이 ‘부러운’ 이 모순덩어리의 상황. 1980년의 광주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행운이라는 단어는 결코 이런 때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가 아닐 뿐더러, 예천한 마음이 들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모르는 이는 드물 것이다. 나 역시 중, 고등학교 시절 이를 배웠으나, 그저 형편없지 않게 억지로 머릿속에 흘러넘친 교과서 숙 글귀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때문에 그곳에 존재한 이들의 일장에 서웠던 이 경험은, 나에게 더욱 아프고 캐다가 율동으로 다가왔다. 책의 저자 역시 마찬가지였던 듯하다.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읽고자 했지만 두 달여 만에 시달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는 작가의 말에서 간접적인 경험조차도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어딘가 멍가져 버린 인형처럼, 이미 영혼이 깨져버려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들이 동호나 정대와는 달리 죽음을 모면했을지라, 그들이 겪은 고통이 결코 죽음보다 나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비극들의 진정한 시발점은 대체 어디리라 빠야 할까. 애당초 동호네 가족과 그 집을 사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었을까. 아니면 동호 어머니의 말처럼, 동호네 집 문간채를 정대 남매에게 세주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까. 동호의 어머니가 그날, 도청 상무관에서 강제로라도 동호의 팔목을 낚아채 집으로 왔다면 괜찮았을까. 사실 이 모든 추측은 무의미하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이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는 것은 울지 않은 것이다. 분명 가해자가 있고, 화살을 돌릴 명확한 방향이 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직까지도 그날의 광주는 끝나지 않았다. 사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고, 경험이 못했던 것에. 그러나 나는 이 소설을 통해 보았고, 알게 되었다. 문학이 가진 힘에 감사함을 느낀다. 이렇게 내게도 소년이 왔다. 당신에게도 소년이 찾아갈 수 있기를.
<table>
<thead>
<tr>
<th>프로그램명</th>
<th>세부내용</th>
<th>예산</th>
</tr>
</thead>
<tbody>
<tr>
<td>'Book드림'</td>
<td>1차</td>
<td></td>
</tr>
<tr>
<td>1. 독서후기 공모작 심사</td>
<td>: 2명 * 1회 * 200,000원</td>
<td>400,000</td>
</tr>
<tr>
<td>2. 독서후기 수상자 시상금</td>
<td></td>
<td>2,400,000</td>
</tr>
<tr>
<td></td>
<td>&lt; 시상금 지급 기준표 &gt;</td>
<td></td>
</tr>
<tr>
<td></td>
<td>상급</td>
<td>지급액</td>
</tr>
<tr>
<td></td>
<td>최우수</td>
<td>200,000원</td>
</tr>
<tr>
<td></td>
<td>우수</td>
<td>100,000원</td>
</tr>
<tr>
<td></td>
<td>장려</td>
<td>50,000원</td>
</tr>
<tr>
<td></td>
<td>가작</td>
<td>30,000원</td>
</tr>
<tr>
<td>'Book새통'</td>
<td>1차</td>
<td></td>
</tr>
<tr>
<td>1. 독서후기 공모작 심사</td>
<td>: 2명 * 1회 * 200,000원</td>
<td>400,000</td>
</tr>
<tr>
<td>2. 독서후기 수상자 시상금</td>
<td></td>
<td>800,000</td>
</tr>
<tr>
<td></td>
<td>&lt; 상품 지급 기준표 &gt;</td>
<td></td>
</tr>
<tr>
<td></td>
<td>상급</td>
<td>지급액</td>
</tr>
<tr>
<td></td>
<td>최우수</td>
<td>200,000원</td>
</tr>
<tr>
<td></td>
<td>우수</td>
<td>100,000원</td>
</tr>
<tr>
<td></td>
<td>장려</td>
<td>50,000원</td>
</tr>
<tr>
<td></td>
<td>가작</td>
<td>30,000원</td>
</tr>
<tr>
<td>2차</td>
<td></td>
<td></td>
</tr>
<tr>
<td>1. 강사료 : 1명 * 1회</td>
<td></td>
<td>200,000</td>
</tr>
<tr>
<td>2. 홍보물 제작</td>
<td></td>
<td>380,500</td>
</tr>
<tr>
<td></td>
<td>· 배너 및 현수막 : 281,500원</td>
<td></td>
</tr>
<tr>
<td></td>
<td>· 진행 : 99,000</td>
<td></td>
</tr>
<tr>
<td>'Book새통'</td>
<td>2차</td>
<td></td>
</tr>
<tr>
<td>1. 강사료 : 1명 * 1회</td>
<td></td>
<td>1,000,000</td>
</tr>
<tr>
<td>2. 도서구입</td>
<td></td>
<td>2,340,000</td>
</tr>
<tr>
<td></td>
<td>· (11,700*200권)</td>
<td></td>
</tr>
<tr>
<td>3. 홍보물 제작</td>
<td></td>
<td>247,500</td>
</tr>
<tr>
<td></td>
<td>· 배너 및 현수막 : 247,500원</td>
<td></td>
</tr>
<tr>
<td>4. 진행비</td>
<td></td>
<td>39,000</td>
</tr>
<tr>
<td></td>
<td>· 회의비 : 39,000원</td>
<td></td>
</tr>
<tr>
<td>프로그램명</td>
<td>세부내용</td>
<td>예산</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Book나래'</td>
<td>1. 강사료 : 1명</td>
<td>300,000</td>
</tr>
<tr>
<td></td>
<td>2. 홍보물 제작비</td>
<td>70,400</td>
</tr>
<tr>
<td></td>
<td>3. 식비 및 간식비 : 15명</td>
<td>422,710</td>
</tr>
<tr>
<td></td>
<td>4. 차량 대여비 : 고속버스 1대</td>
<td>150,000</td>
</tr>
<tr>
<td></td>
<td>5. 여행자보험료</td>
<td>86,410</td>
</tr>
<tr>
<td></td>
<td>6. 사전답사비</td>
<td>140,000</td>
</tr>
<tr>
<td></td>
<td>7. 운영비</td>
<td>37,200</td>
</tr>
<tr>
<td></td>
<td>8. 문화상품권 지급</td>
<td>190,000 (eBook 경제상의 이익으로 지출)</td>
</tr>
<tr>
<td></td>
<td>합계</td>
<td>1,206,720</td>
</tr>
<tr>
<td>'밤샘독서'</td>
<td>1. 심사 교수비 : 2명 * 1회 * 200,000</td>
<td>400,000</td>
</tr>
<tr>
<td></td>
<td>2. 독서후기 수상자 시상금 &lt; 시상금 지급 기준표 &gt;\</td>
<td>1,250,000</td>
</tr>
<tr>
<td></td>
<td>: 상급</td>
<td>지급액</td>
</tr>
<tr>
<td></td>
<td>최우수</td>
<td>200,000원</td>
</tr>
<tr>
<td></td>
<td>우수</td>
<td>150,000원</td>
</tr>
<tr>
<td></td>
<td>장려</td>
<td>100,000원</td>
</tr>
<tr>
<td></td>
<td>가작</td>
<td>50,000원</td>
</tr>
<tr>
<td></td>
<td>3. 홍보물 제작: 배너 및 현수막</td>
<td>146,300</td>
</tr>
<tr>
<td></td>
<td>4. 햄버거 및 간식비</td>
<td>1,858,450</td>
</tr>
<tr>
<td></td>
<td>5. 경품 : 문화상품권</td>
<td>240,000 (eBook 경제상의 이익으로 지출)</td>
</tr>
<tr>
<td></td>
<td>6. 진행비 * 물품 구입 : 131,000 * 아르바이트비 : 400,000</td>
<td>531,000</td>
</tr>
<tr>
<td></td>
<td>합계</td>
<td>8,375,790</td>
</tr>
<tr>
<td>기타 1. 정석과 함께하는 음악회 : 1,185,900</td>
<td>1,502,550</td>
<td></td>
</tr>
<tr>
<td></td>
<td>2. 음악감상회 : 316,650</td>
<td>1,502,550</td>
</tr>
<tr>
<td></td>
<td>합계</td>
<td>17,692,060</td>
</tr>
<tr>
<td>구분</td>
<td>주 제</td>
<td>2013</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Book 독립'</td>
<td>1차</td>
<td>- 학문의 즐거움 (히로나카 헤이스케)</td>
</tr>
<tr>
<td></td>
<td></td>
<td>- 투게더 (리처드 셰딧)</td>
</tr>
<tr>
<td></td>
<td>2차</td>
<td>- 불평등의 대가 (조지프 스티글리츠)</td>
</tr>
<tr>
<td></td>
<td></td>
<td>- 파편과 형세 (최문규)</td>
</tr>
<tr>
<td></td>
<td>3차</td>
<td>-</td>
</tr>
<tr>
<td>'Book 새로'</td>
<td>1차</td>
<td>'나를 꿈꾸게 하는 클래식' (금난새의 클래식 여행 저자)</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2차</td>
<td>-</td>
</tr>
<tr>
<td>'Book 나래'</td>
<td></td>
<td>충청남도 부여 신동엽 문학관</td>
</tr>
<tr>
<td>'독서 동아리 지원'</td>
<td></td>
<td></td>
</tr>
<tr>
<td></td>
<td>1차</td>
<td>-</td>
</tr>
<tr>
<td>'방생 독서'</td>
<td>2차</td>
<td>-</td>
</tr>
<tr>
<td>구분</td>
<td>주 제</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strong>Book드림</strong></td>
<td></td>
<td></td>
</tr>
<tr>
<td>1차</td>
<td>- 생명의 느낌 (이블린 폴스 캐리)</td>
<td></td>
</tr>
<tr>
<td></td>
<td>- 김상욱의 과학공부 (김상욱)</td>
<td></td>
</tr>
<tr>
<td></td>
<td>'하계방학 중 학습정보 이용활성화 이벤트' (독서후기 공모)</td>
<td></td>
</tr>
<tr>
<td></td>
<td>하계방학 'Book드림' (독서후기 공모)</td>
<td></td>
</tr>
<tr>
<td>2차</td>
<td>'동계방학 중 학습정보 이용활성화 이벤트' (독서후기 제출)</td>
<td></td>
</tr>
<tr>
<td></td>
<td>'동계방학 중 학습정보 이용활성화 이벤트' (독서후기 공모)</td>
<td></td>
</tr>
<tr>
<td></td>
<td>동계방학 'Book드림' (독서후기 공모)</td>
<td></td>
</tr>
<tr>
<td>3차</td>
<td></td>
<td></td>
</tr>
<tr>
<td><strong>Book새통</strong></td>
<td></td>
<td></td>
</tr>
<tr>
<td>1차</td>
<td>'한국인의 죽음 이후의 세계' / 서명대 교수 (사학과)</td>
<td></td>
</tr>
<tr>
<td></td>
<td>'연애의 고고학 : 1910~1920년대의 문학적 풍경' / 김동식 교수 (한국어문학과)</td>
<td></td>
</tr>
<tr>
<td></td>
<td>'성공하는 사람의 첫 번째 습관' / 김명 교수 (한국어문학과)</td>
<td></td>
</tr>
<tr>
<td>2차</td>
<td>20대에게 힘이 되어주는 한 마디 / 정호승 시인</td>
<td></td>
</tr>
<tr>
<td></td>
<td>'박준 시인이 들려주는 희망의 메시지 : 바닥에서도 아름답게' / 박준 시인</td>
<td></td>
</tr>
<tr>
<td></td>
<td>'막연한 생각은 어떻게 소설이 되는가?' / 김연수 작가</td>
<td></td>
</tr>
<tr>
<td>'Book나래'</td>
<td></td>
<td></td>
</tr>
<tr>
<td></td>
<td>남한산성 만해기념관</td>
<td></td>
</tr>
<tr>
<td></td>
<td>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td>
<td></td>
</tr>
<tr>
<td></td>
<td>포석 조명희 문학관</td>
<td></td>
</tr>
<tr>
<td>'독서등어리 지원'</td>
<td></td>
<td></td>
</tr>
<tr>
<td></td>
<td>복다방</td>
<td></td>
</tr>
<tr>
<td></td>
<td>독서심매경</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strong>범생독서</strong></td>
<td></td>
<td></td>
</tr>
<tr>
<td>1차</td>
<td>'불금을 정석에서 추억 드book!'</td>
<td></td>
</tr>
<tr>
<td></td>
<td>'불금을 정석에서 추억 드book!'</td>
<td></td>
</tr>
<tr>
<td></td>
<td>'불금을 정석에서 추억 드book!'</td>
<td></td>
</tr>
<tr>
<td>2차</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구분</td>
<td>실적</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2013</td>
<td>2014</td>
</tr>
<tr>
<td><strong>Book드림</strong></td>
<td></td>
<td></td>
</tr>
<tr>
<td>1차</td>
<td>도서배부: 300권</td>
<td>도서배부: 140권</td>
</tr>
<tr>
<td></td>
<td>후기접수: 53건</td>
<td>후기접수: 28건</td>
</tr>
<tr>
<td></td>
<td>수상자: 15명</td>
<td>수상자: 10명</td>
</tr>
<tr>
<td>2차</td>
<td>도서배부: 250권</td>
<td>도서배부: 160권</td>
</tr>
<tr>
<td></td>
<td>후기접수: 61건</td>
<td>후기접수: 29건</td>
</tr>
<tr>
<td></td>
<td>수상자: 15명</td>
<td>수상자: 15명</td>
</tr>
<tr>
<td>3차</td>
<td>-</td>
<td>-</td>
</tr>
<tr>
<td><strong>Book새통</strong></td>
<td></td>
<td></td>
</tr>
<tr>
<td>1차</td>
<td>도서배부: 150권</td>
<td>도서배부: 250권</td>
</tr>
<tr>
<td></td>
<td>강연참석: 250명</td>
<td>강연참석: 355명</td>
</tr>
<tr>
<td></td>
<td>후기등록: 22건</td>
<td>후기등록: 20건</td>
</tr>
<tr>
<td></td>
<td>수상자: 8명</td>
<td>수상자: 8명</td>
</tr>
<tr>
<td>2차</td>
<td>-</td>
<td>-</td>
</tr>
<tr>
<td><strong>Book나래</strong></td>
<td></td>
<td></td>
</tr>
<tr>
<td></td>
<td>도서배부: 20권</td>
<td>사전답사만 진행</td>
</tr>
<tr>
<td></td>
<td>참여학생: 20명</td>
<td>-</td>
</tr>
<tr>
<td><strong>독서동아리지원</strong></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도서지원: 20종 / 137권</td>
</tr>
<tr>
<td><strong>밤샘독서</strong></td>
<td></td>
<td></td>
</tr>
<tr>
<td>1차</td>
<td>-</td>
<td>-</td>
</tr>
<tr>
<td>2차</td>
<td>-</td>
<td>-</td>
</tr>
<tr>
<td>구분</td>
<td>실 적</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2016</td>
<td>2017</td>
</tr>
<tr>
<td>1차</td>
<td></td>
<td></td>
</tr>
<tr>
<td>3차</td>
<td></td>
<td></td>
</tr>
<tr>
<td>'Book 새통'</td>
<td>도서구입 : 30권 강연참석 : 190명 후기등록 : 12건 수상자 : 8명</td>
<td>강연참석 : 121명</td>
</tr>
<tr>
<td>2차</td>
<td>도서배부 : 100권 강연참석 : 200명</td>
<td>도서배부 : 180권 강연참석 : 229명</td>
</tr>
<tr>
<td>'Book 나래'</td>
<td>참여학생 : 26명</td>
<td>참여학생 : 20명</td>
</tr>
<tr>
<td>'독서 동아리 지원'</td>
<td>도서지원 : 11종/69권</td>
<td></td>
</tr>
<tr>
<td>구분</td>
<td>예 산</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2013</td>
<td>2014</td>
</tr>
<tr>
<td>'Book드림'</td>
<td>도서구입비 : 9,765,000 2회 심사료 : 400,000 상급 : 2,300,000 기타 : 백서발간, 홍보물제작 및 진행비 등</td>
<td>도서구입비 : 5,283,600 2회 심사료 : 400,000 상급 : 2,176,390 기타 : 백서발간, 홍보물제작 및 진행비 등</td>
</tr>
<tr>
<td></td>
<td>총 17,000,000 집행</td>
<td>총 10,638,400 집행</td>
</tr>
<tr>
<td>'Book새통'</td>
<td>도서구입비 : 3,780,000 강사료 : 700,000 상급 : 350,000 기타 : 진행비 등</td>
<td>도서구입비 : 2,625,000 강사료 : 500,000 상급 : 355,500 기타 : 진행비 등</td>
</tr>
<tr>
<td></td>
<td>총 5,500,000 집행</td>
<td>총 4,362,000 집행</td>
</tr>
<tr>
<td>'Book나래'</td>
<td>차량, 도서, 기타 진행비 등</td>
<td>사전답사비</td>
</tr>
<tr>
<td></td>
<td>총 4,500,000 집행</td>
<td>총 130,322 집행</td>
</tr>
<tr>
<td>'독서 동아리 지원'</td>
<td>북다방 독서참여 겸</td>
<td>도서구입비 : 2,000,000 진행비 : 200,000 동</td>
</tr>
<tr>
<td></td>
<td>총 2,200,000 집행</td>
<td>총 2,200,000 집행</td>
</tr>
<tr>
<td>'밤샘독서'</td>
<td>-</td>
<td>-</td>
</tr>
<tr>
<td>'발생독서'</td>
<td>-</td>
<td>-</td>
</tr>
<tr>
<td>기타</td>
<td>달력제작 3,000,000 집행</td>
<td>-</td>
</tr>
<tr>
<td>종합</td>
<td>30,000,000</td>
<td>17,330,322</td>
</tr>
<tr>
<td>구분</td>
<td>예 산</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2016</td>
<td>2017</td>
</tr>
<tr>
<td>'Book드림'</td>
<td></td>
<td></td>
</tr>
<tr>
<td>도서구입비</td>
<td>3,024,000</td>
<td>2,000,000</td>
</tr>
<tr>
<td>1회 심사료</td>
<td>800,000</td>
<td>800,000</td>
</tr>
<tr>
<td>상금</td>
<td>590,000</td>
<td>800,000</td>
</tr>
<tr>
<td>기타</td>
<td>3,814,000</td>
<td>1,600,000</td>
</tr>
<tr>
<td>'Book새통'</td>
<td></td>
<td></td>
</tr>
<tr>
<td>도서구입비</td>
<td>1,719,000</td>
<td>1,800,000</td>
</tr>
<tr>
<td>강사료</td>
<td>700,000</td>
<td>700,000</td>
</tr>
<tr>
<td>- 1차 교내 강사료: 200,000</td>
<td>200,000</td>
<td>200,000</td>
</tr>
<tr>
<td>- 2차 교외 강사료: 500,000</td>
<td>500,000</td>
<td>500,000</td>
</tr>
<tr>
<td>상금</td>
<td>300,000</td>
<td>800,000</td>
</tr>
<tr>
<td>기타</td>
<td>3,714,810</td>
<td>3,141,100</td>
</tr>
<tr>
<td>'Book나래'</td>
<td></td>
<td></td>
</tr>
<tr>
<td>차량, 도서, 기타행사 등</td>
<td>2,326,570</td>
<td>1,759,860</td>
</tr>
<tr>
<td>'독서동아리 지원'</td>
<td></td>
<td></td>
</tr>
<tr>
<td>도서구입비</td>
<td>1,258,380</td>
<td>939,300</td>
</tr>
<tr>
<td>진행비</td>
<td>69,300</td>
<td>69,300</td>
</tr>
<tr>
<td>'발생독서'</td>
<td></td>
<td></td>
</tr>
<tr>
<td>심사료</td>
<td>400,000</td>
<td>800,000</td>
</tr>
<tr>
<td>상금</td>
<td>1,450,000</td>
<td>2,500,000</td>
</tr>
<tr>
<td>기타</td>
<td>4,214,080</td>
<td>7,309,500</td>
</tr>
<tr>
<td>기타</td>
<td></td>
<td></td>
</tr>
<tr>
<td>음악회</td>
<td>1,330,700</td>
<td>1,185,900</td>
</tr>
<tr>
<td>음악감상회</td>
<td>239,500</td>
<td>316,650</td>
</tr>
<tr>
<td>2018 Book음원 풍보물: 132,000</td>
<td></td>
<td></td>
</tr>
<tr>
<td>음악회</td>
<td>1,702,200</td>
<td>1,502,550</td>
</tr>
<tr>
<td>종합</td>
<td>15,397,140</td>
<td>15,512,660</td>
</tr>
</tbody>
</table>
1. 'Book드림' 관련 기사모음

< 2018학년도 동계방학 우수 독서후기 시상식 >

지난 2018년 12월 24일부터 2019년 2월 10일까지 시행된 '2018학년도 동계방학 'Book드림(독서후기 공모)'의 우수 독서후기 시상이 2월 20일 정석학습정보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되었다.

71명의 학생이 71건의 독서후기를 제출하였으며 우수 독서후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최우수상 : 김*현(언론정보학과)
* 우수상 : 김*정(교육학과), 김*빈(한국어문학과)
* 장려상 : 남*민(고분자공학과), 김*영(아동심리학과), 공*인(소비자학과)
  원*진(중국학과), 고*진(아태물류학부)
* 가작 : 김*권(정보통신학과), 윤*현(간호학과), 서*희(사회교육과)
  임*환(정보통신공학과), 김*림(한국어문학과)

우수 독서후기 수상자에게는 상급별로 상장이 수여되었으며 시상금(최우수상 20만원, 우수상 10만원, 장려상 5만원, 가작 3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독서후기 심사를 맡은 프런티어학부대학 송수연, 정영진 강사는 ’행사가 거듭될수록 발전해 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어 기쁜 심사였고, 저자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기 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고, 견주어보고, 고민하면서 궁극적으로 더욱 나은 생각을 이끌어 내는 모습이 믿음직 하다’며 심사평을 전했다.
2. ‘Book새통’ 관련 기사모음

〈2018학년도 제1차 ‘Book새통’ 인문학강좌 개최〉

5월 8일(화), 2018학년도 제1차 ‘Book새통’ 인문학강좌가 정석학술정보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었다.

ACE+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Book새통’ 행사사는 책 읽는 리더 양성을 위한 독서권장 프로젝트 ‘Book들음’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이번 행사는 본교 국어교육과 김영 교수님을 초청하여, 인문학강좌를 진행하였다.

강연에 앞서 김봉세 부관장은 참석한 학생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정석학술정보관의 지난 ‘Book새통’ 행사와 김영 교수님의 약력과 저서를 소개하며 인문학강좌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Book새통’ 인문학강좌의 주제는 ‘성공하는 사람의 첫 번째 습관, 독서’였다. 곧 정년 퇴임으로 학교를 떠나는 김영 교수가 학생들에게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독서의 중요성이었다.

자기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힘을 주는 독서는 자기 콤플렉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자기 균정의 기회’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미래의 희망을 꿈꾸게 하는 계기가 됨을 말하며, 독서를 함으로써 세상을 보는 눈이 차라리 삶을 바꾸는 위대한 정신과 창조적 만남의 기회가 됨을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천재는 열정적 노력으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임을 강조하며, 작고 재미있는 책으로, 트리나 포올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과 장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을 추천하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강연이 끝난 후, 이병찬 정석학술정보관장은 본관의 ‘Book새통’ 행사에 강연해 주신 김영 교수에게 감사패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지난해에 이어, 정석학술정보관에서 본교 교수님을 초청하여 마련한 인문학 강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교수님과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학기 ‘Book새통’은 외부 저자들을 모셔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9월 13일 목요일, 2018학년도 제2차 'Book새통': 인문학강좌가 정석학술정보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었다. ACE+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Book새통' 행사에는 책 읽는 리더 양성을 위한 독서권장 프로젝트 'Book돋움'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1학기에 이어 이번에는 김연수 작가를 초청하여 인문학강좌를 진행하였다.

이번 'Book새통': 인문학강좌의 주제는 ‘막연한 생각은 어떻게 소설이 되는가?’였다. 작가가 소설을 쓰기 시작하고 소설가가 되는 동안 겪은 과정과 소설을 쓰게 만든 ‘어떤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며 강연을 진행하였다.
작가는 인생과 세상에 대한 관심사가 생겨 소설을 쓰게 되었으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내가 태어난 세상은 왜 이렇게 되어있는가'를 자극하는 어떤 것들이 소설을 쓰게 됐음을 말했다. 그런 점에서 『굴빠이, 이상』은 이상의 여동생 옥희의 회상에 언급된 이상의 테드마스크에서 시작되었고,『밤은 노래한다』는『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을 읽은 후 쓰게 된 소설임을 말했다. 이어 작가로 하여금 소설을 쓰게 한 '막연한 생각'의 시작과 그로부터 쓰게 된 작품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연수 작가는 학생들에게, "미약한 어떤 것으로 시작하다라도, 어//{{{{}}}}적, 발전이 되는가는 본인에게 달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식물의 키우듯이 잘 가꾸어 보기를 바란다."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강연이 끝난 후, 김연수 작가의 사인회를 끝으로 행사가 종료되었다.

바쁘신 일정에도 ‘Book새통’ 행사에 강연해 주신 김연수 작가와 강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
3. 'Book나래' 관련 기사모음

< 2018학년도 'Book나래' 포석 조명희 문학관 문학기행 시행 >

11월 2일 금요일, 2018학년도 'Book나래' 문학기행을 충청북도 진천군 소재 '포석 조명희 문학관'과 '이상설 생가'로 떠났다. 20세기 대표적인 시인이자 소설가 그리고 극작가였던 포석 조명희 선생의 작품을 감상하고,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의 생애를 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을 취지로 이번 문학기행이 진행되었다.

'Book나래' 문학기행을 참가하기 위해 학생들은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아침 일찍 학교로 모였다. 학술정보운영팀 직원들의 인솔하에 오전 9시가 조금 지나 버스에 탑승하고 진천으로 출발했다. 출발 후 정석학술정보관 이병찬 관장은 문학기행을 참가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지난해 문학기행보다 다소 적은 인원이지만 참가 학생 전부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장점이 있어 좋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그 후 조명희 문학관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샌드위치와 푸짐한 간식을 먹으며 포석 조명희 선생의 생애와 문학 작품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빙강사인 프런티어학부대학 송수연 강사는 준비한 자료를 활용해 조명희 선생의 문학 작품 특성을 설명해 주었다. 강사의 설명 중 "자발적 친일과 비자발적 친일의 수준이 다르다"라는 내용은 인상적이었다. 또한 학생들은 자료집을 토대로 한 퀴즈를 통해 설명 들었던 내용을 복습할 수 있었으며, 퀴즈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였다.

포석 조명희 문학관에 도착한 학생들은 진천군 소속 자원봉사자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조명희 선생의 생애와 작품들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곳에는 조명희 선생의 생애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 즉,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의 설명이 함께 있어 조명희 선생의 생애와 작품들에 더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었고 조명희 선생이 극단에 있을 때 만든 노래인 ‘낙동강에 대한 노래’를 실제로 들을 수 있어서 더욱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강상을 마친 후 3층 세미나실에서 송수연 강사의 진행을 통해 학생들은 조명희 선생의 작품을 낭송하고 느낀점을 발표하는 시간을 1시간 남짓 가졌다. 학생들은 조명희 선생의 작품인 ‘별 밑으로’에서 시인의 강한함을, ‘나의 고향이’라는 시에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녹아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조명희 문학관에서 강상과 토론을 마치고 오삼불고기와 보리밥으로 점심식사를 하였다. 참가학생들은 ice breaking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자신의 문학세계를 서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며 즐거운 점심시간을 보냈다. 식사를 마치고 잠깐의 휴식시간 동안 참가 학생들은 서로 사진을 찍어주었고 같이 사진 찍는 모습들은 아주 예쁜 보였다.
이어서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의 생가로 출발했다. 버스를 내리자 해설사가 기다리고 있었고 곧바로 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으로만이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이상설 선생을 알아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이상설 선생을 모시는 사당에 직접 들어가 향을 피우고 절을 하기도 하며 독립운동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을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Book나래’는 따뜻한 날씨와 함께해 즐겁게 문학기행을 마칠 수 있었다. 참가 학생들의 참가 이유가 시험이 끝난 후 기분전환을 목적으로 또는, 문학을 좋아하기 때문 등이 있을 수 있지만 끝에는 이러한 문학기행에 관심을 갖고 활발한 참여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열정적으로 문학 기행에 참여한 참가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4. '밤샘독서' 관련 기사모음

< 2018학년도 1차 '밤샘독서'이벤트 - 불금을 정석에서 추억 드림book! >

지난 5월 25일~26일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이 지원하는 독서권장 프로젝트 'Book돋움'의 일환으로 밤샘독서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밤샘독서는 2016년 11월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신선하고 알찬 독서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 2017년부터는 불과 가을 2회에 걸친 정기 행사로 자리 잡았다.

밤샘독서의 관심은 사전 신청 때부터 드러나 접수가 조기 마감되었고, 독서 열정을 가진 12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행사 시작 전 학생들에게 행사일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정석학술정보관 김봉세 부관장과 이병찬 관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김봉세 부관장은 "일탈"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행사를 통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를 당부하였다.
이병찬 관장은 "좋은 추억을 많이 쌓기를 바란다."라는 인사로 책과 함께 다양한 즐길 거리가 준비된 밤샘독서 행사를 예고했다.

밤샘독서는 행사명처럼 25일 저녁 10시부터 26일 아침 6시까지 진행되었다. 참가 학생들이 정석100선, 테마추천도서를 선택해서 읽고 독서 후기를 제출하면, 우수 후기 작성자에게는 총 125만원 상당의 시상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새벽에는 지난해에 큰 호응을 받았던 ‘인하 사랑 배지 찾기’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또한 즉석에서 간단한 게임을 하여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있었다.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책읽기와 더불어 대학생들의 충에 뜨겁게 추억을 만들고자 참가한 학생들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맛있는 간식을 제공하였다. 참가한 학생들은 자유롭게 책을 읽으면서 그래비티를 적성하여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을 기념하였다.
밤샘독서는 학업과 취업준비 등에 치여 책 읽는 즐거움과 학창시절의 추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인하인에게 친구들과 함께 또는 혼자 밤을 새면서 독서의 매력에 빠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서관에 대한 친밀감을 높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되었다.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이번 밤샘독서가 단순한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인하인의 평생 독서습관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에 준비하였으며, 학생들의 도전정신과 이병찬관장이 담당부서의 열정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2018-1차 밤샘독서 우수 독서후기 시상식이 6월 8일 정석학술정보관 로비에서 진행되었다. 제출된 독서후기 가운데 13건의 우수작을 선정하였고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최우수상 : 류*민(컴퓨터공학과)
* 우 수 상 : 유*우(전기공학과), 최*주(교육학과)
* 장 려 상 : 우*로(화학공학과), 손*경(경영학과), 우*호(전기공학과), 박*우(화학공학과), 박지영(전자공학과)
* 가 작 : 김*민(영어영문학과), 임*한(정보통신공학과), 이*하(연극영상학과), 김*연(경영학과), 백*진(식품영양학과)

우수 독서후기 수상자에게는 시상금(최우수상 20만원, 우수상 15만원, 장려상 10만원, 가작 5만원)이 지급되었다.

이병찬 관장은 "독서를 하는 것이 어려워진 현실을 안타깝게 하며 독서를 힐링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심사를 맡은 프런티어학부 송수연, 정연진 강사는 "책의 내용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면서 비판적인 글쓰기를 보여주었고, 밤샘독서 행사가 학생들에게 독서의 즐거음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며 심사평을 전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류 민 학생은 "취업 준비를 한다는 핑계로 책을 읽는 시간이 점점 줄어 아쉬웠는데, 책과 관련된 행사를 통해 한동안 잊고 있었던 책에 대한 재미를 다시 일깨워준 즐거운 경험이었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지난 11월 16일~17일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이 지원하는 독서권장 프로젝트 ‘Book돋움’의 일환으로 밤샘독서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밤샘독서는 2016년 11월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신선하고 알찬 독서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 2017년부터는 봄과 가을 2회에 걸친 정기 행사로 자리 잡았다. 밤샘독서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져 사전 신청이 조기 마감되었고, 15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행사 시작 전 학생들에게 행사일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정석학술정보관 김봉세 부관장과 이병찬 관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김봉세 부관장은 행사 의도에 걸맞는 "일탈"이라는 주제에 "꿈"을 다하여, 학생들이 책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으며 꿈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서 정치외교학과 이어진 학생이 "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병찬 관장은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적극성을 높이 사며 응원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많이 쌓기 바란다."는 인사를 전했다.

밤샘독서 여정은 '불금을 정석에서 추억 돼 Book' 행사명을 힘차게 외치며 시작되었다. 먼저 이병찬 관장이 '불금'을 하면 학생들이 '정석에서', 다시 이병찬 관장이 '추억'을 선창하면 참가자들이 '드Book'을 힘차게 제창하였다.
밤샘독서는 행사명처럼 16일 저녁 10시부터 17일 아침 6시까지 진행되었다. 참가 학생들이 정석100선, 테마추천도서를 선택해서 읽고 독서 후기를 제출하면, 우수 후기 작성자에게는 총 125만원 상당의 시상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새벽에는 매 행사 때마다 큰 호응을 받았던 ‘인하 사랑 배지 찾기’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번 행사부터는 자유롭게 퍼즐 맞추기, 큐브 맞추기 등의 미니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책읽기와 더불어 대학생생활 중에 뜻깊은 추억을 만들고자 참가한 학생들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맛있는 간식을 제공하였다. 참가한 학생들은 자유롭게 책을 읽으면서 그래비티를 작성하여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을 기념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조선해양공학과 조성근 학생은 “꿈이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며,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하다 보면 또 다른 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하였다.
밤샘독서는 학업과 취업준비 등에 치여 책 읽는 즐거움과 학창시절의 추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인하인에게 친구들과 함께 또는 혼자 밤을 새면서 독서의 매력을 빼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서관에 대한 친밀감을 높여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되었다.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학생들의 참여의식을 더욱 고취시키고자 밤샘독서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비교과 마일리지 2점과 수료증을 수여한다.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이번 밤샘독서가 단순한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인하인의 평생 독서습관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하였으며, 학생들의 도전정신과 이병찬 관장이하 담당부서의 열정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인하인의 독서문화 증진은 도서관의 핵심 과제이기에, 앞으로도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8-2차 밤샘독서 우수 독서후기 시상식이 12월 5일 정서학습정보관 로비에서 진행되었다. 제출된 독서후기 가운데 13건의 우수작을 선정하였고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최우수상 : 장*아(국제통상학과)
* 우 수 상 : 임*진(사회인프라공학과), 김*빈(한국어문학과)
* 장 려 상 : 김*정(정치외교학과), 김*우(생명공학과), 심*인(간호학과), 이*완(신소재공학과), 한*영(화학과)
* 가 작 : 유*정(간호학과), 심*주(컴퓨터공학과), 이*은(생명공학과), 김*훈(정보통신공학과), 김*현(사회복지학과)

우수 독서후기 수상자에게는 시상금(최우수상 20만원, 우수상 15만원, 장려상 10만원, 가작 5만원)이 지급되었다.
이병찬 관장은 “책을 읽는 것은 사고를 넓히는 활동이다. 책을 많이 읽고 힘찬 미래를 열어갔으면 좋겠다. 밤샘독서 시상식을 빛내줘서 감사하다.”라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심사를 맡은 프런티어학부 송수연, 정연진 강사는 “학생들의 관심사와 생각을 알 수 있고, 무엇보다 세상과 자신을 읽어내는 학생들의 든든한 시선은 언제나 아직 우리에게 이토록 많은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며 심사평을 전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컴퓨터공학과 류*민 학생은 "독서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다. 졸업 전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으니 좋았고, 친구들에게도 밤샘독서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고 싶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5. '정석과 함께하는 음악회' 관련 기사모음

지난 5월 10일(목), 정석학술정보관에서 '정석과 함께하는 음악회'가 열렸다. 도서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된 이번 음악회는 'CaMuE String Quartet (카뮤이 현악 4중주)'를 초청하여 진행되었다.

연주에 앞서 이병찬 정석학술정보관장은, "정석학술정보관을 찾아준 카뮤이 연주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학생들에게 힐링이 되는 훌륭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카뮤이(Camerata Musica Ewha)는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동문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양성블 단체이다. 이날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모차르트(Mozart)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 (Eine Kleine Nachtmusik) 1악장을 시작으로, 총 4곡을 연주했다.
연주는 해설과 함께 진행되었다. 특히 하이든(J. Haydn)의 중기 고전주의 대표 작품인 현악 4중주곡 '종달새(The Lark)'는 주선율인 바이올린의 소리가 '새들이 노래하는 것 같다'며 지어진 부제로, 각 악장의 특색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에 전 악장을 보다 귀 기울여 감상할 수 있었다.

이어 20세기 현대음악 발전에 기여한 베버른(A. Webern)의 사랑을 노래하는 '현악 4중주를 위한 느린 악장 (Langsamer Satz for String Quartet)'과 체코 민족주의 음악가인 드보르작(A. Dvorak)의 현악 4중주곡 '아메리카(American)'를 끝으로 활기차고 경쾌하게 마무리되었다.
작년 목관 5중주 음악회에 이어 진행된 이번 음악회도 학생들의 많은 관심 속에 막을 내렸다. 학생들이 클래식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
6. '음악감상회' 관련 기사모음

 정석과 함께하는 클래식, 즐겁게 알아가기!

정석과 함께하는 클래식, 즐겁게 알아가기!
지난 11월 9일(금) 정석학술정보관 가상현실체험센터에서
'Why Bach? All Of Bach 바흐의 모든 것' 주제로 클래식 음악감상회가 열렸다.
작년 '봄과 여름 사이, 몸과 마음을 깨우는 리듬의 향연 From 쇼팽 to 피아졸라'란 주제로
'클래식음악감상회'가 열린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열리는 음악감상회다.
본 관 김봉세 부관장의 환영의 인사말로 시작, 이번 감상회도 작년에 이어 본교 서양음악사
반율리 선생님의 곡에 대해 해설과 영상 감상 순으로 진행되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 음악의 아버지 바흐(독일)의 가문은 200년에 걸쳐 50명 이상의
음악가를 배출해 온 유럽 최대의 음악가이며, 9세 때 어머니, 10세 때 아버지를 잃은 뒤
어렵게 음악에 대한 향상을 할 수 있었다는 설명으로 시작된 바흐의 대한 설명은
왜? 음악에 대한 작업을 열심히 했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주었다.
'Why Bach? All Of Bach 바흐의 모든 것'

이번 음악감상회는 총 6곡의 설명 후 감상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1. Toccata from Toccata and Fugue in D minor BWV 565 오르간
2. Invention No. 1 in C major 인벤션
3. Brandenburg' Concerto No. 4 in G major BWV 1049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 Erbarme dich, mein Gott from St Matthew Passion BWV 244 마태수난곡
5. Cello Suite No. 1 in G major BWV 1007 첼로

오르간의 장엄한 연주로 감상으로 시작, 중간 중간에 음악의 어머니 헨델과의 일화도 소개. 중간 중간에 작은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시면서 학생들의 관심을 높여 주셨다. 또 왜 바흐의 곡에 BWV 명명하는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이번 감상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로 마무리를 지으신 반선생님은 인물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앞으로도 좋은 것 같다는 말씀을 남기셨다. 이번 음악감상회는 52명의 학생과 교수님이 참석해서 높은 보였으며, 마지막 감상곡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감상하는 등, 아쉬움을 남기는 표정을 짓기도 하였다. 참석한 학생들은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었다.
◇ ‘정석 100선’ 목록 ◇

[ 자연과학 ]

<table>
<thead>
<tr>
<th>연번</th>
<th>서명</th>
<th>저자</th>
<th>출판사</th>
</tr>
</thead>
<tbody>
<tr>
<td>1</td>
<td>가이아</td>
<td>제임스 러브룩</td>
<td>갈라파고스</td>
</tr>
<tr>
<td>2</td>
<td>거의 모든 것의 역사</td>
<td>빌 브라이ATTER 원문</td>
<td>까치글방</td>
</tr>
<tr>
<td>3</td>
<td>과학</td>
<td>존 그리빈</td>
<td>들녘</td>
</tr>
<tr>
<td>4</td>
<td>과학혁명의 구조</td>
<td>토마스 콴</td>
<td>까치글방</td>
</tr>
<tr>
<td>5</td>
<td>김상욱의 과학공부</td>
<td>김상욱</td>
<td>동아시야</td>
</tr>
<tr>
<td>6</td>
<td>링크</td>
<td>알버트 바라바시</td>
<td>동아시야</td>
</tr>
<tr>
<td>7</td>
<td>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td>
<td>스티븐 핑커</td>
<td>동녘사이언스</td>
</tr>
<tr>
<td>8</td>
<td>부분과 전체</td>
<td>베르너 하이젠베르크</td>
<td>지식산업사</td>
</tr>
<tr>
<td>9</td>
<td>생명이란 무엇인가</td>
<td>에르빈 슈뢰딩거</td>
<td>한울</td>
</tr>
<tr>
<td>10</td>
<td>시간의 역사</td>
<td>스티븐 호킹</td>
<td>까치글방</td>
</tr>
<tr>
<td>11</td>
<td>이기적 유전자</td>
<td>리처드 도킨스</td>
<td>울유문화사</td>
</tr>
<tr>
<td>12</td>
<td>이중나선</td>
<td>제임스 describing 원문</td>
<td>궁리</td>
</tr>
<tr>
<td>13</td>
<td>인간의 극노에서</td>
<td>제인 구달</td>
<td>사이언스북스</td>
</tr>
<tr>
<td>14</td>
<td>코스모스</td>
<td>칼 세이건</td>
<td>사이언스북스</td>
</tr>
<tr>
<td>15</td>
<td>털 없는 원숭이</td>
<td>데즈먼드 모리스</td>
<td>문예춘추사</td>
</tr>
</tbody>
</table>

[ 인문학 ]

<table>
<thead>
<tr>
<th>연번</th>
<th>서명</th>
<th>저자</th>
<th>출판사</th>
</tr>
</thead>
<tbody>
<tr>
<td>1</td>
<td>간디 자서전</td>
<td>마하트마 간디</td>
<td>동해출판</td>
</tr>
<tr>
<td>2</td>
<td>고백록</td>
<td>아우구스티누스</td>
<td>포이애마</td>
</tr>
<tr>
<td>3</td>
<td>국가</td>
<td>플라톤</td>
<td>아름다운날</td>
</tr>
<tr>
<td>4</td>
<td>그리스 로마 신화</td>
<td>토마스 솔만</td>
<td>헤원출판사</td>
</tr>
<tr>
<td>5</td>
<td>논여</td>
<td>궁자</td>
<td>민음사</td>
</tr>
<tr>
<td>6</td>
<td>다산시선</td>
<td>정약용</td>
<td>창비</td>
</tr>
<tr>
<td>7</td>
<td>만들어진 신</td>
<td>리처드 도킨스</td>
<td>김영사</td>
</tr>
<tr>
<td>8</td>
<td>맹자</td>
<td>맹자</td>
<td>민음사</td>
</tr>
<tr>
<td>9</td>
<td>문명의 충돌</td>
<td>세워일 헨델턴</td>
<td>김영사</td>
</tr>
<tr>
<td>10</td>
<td>방법서설</td>
<td>데카르트</td>
<td>문예출판사</td>
</tr>
<tr>
<td>11</td>
<td>사기열전</td>
<td>사마천</td>
<td>청아출판사</td>
</tr>
<tr>
<td>12</td>
<td>삼국유사</td>
<td>일연</td>
<td>울유문화사</td>
</tr>
<tr>
<td>13</td>
<td>세계사 편력</td>
<td>자와할랄 네루</td>
<td>원문</td>
</tr>
<tr>
<td>14</td>
<td>스피노사의 뇌</td>
<td>안토니오 다마지오</td>
<td>사이언스북스</td>
</tr>
<tr>
<td>15</td>
<td>역사 속의 영웅들</td>
<td>윌 루렌트</td>
<td>김영사</td>
</tr>
<tr>
<td>16</td>
<td>역사관 무엇인가</td>
<td>에드워드 카</td>
<td>육문사</td>
</tr>
<tr>
<td>17</td>
<td>인간의 이해력에 관한 탐구</td>
<td>데이비드 홈</td>
<td>지식산업</td>
</tr>
<tr>
<td>18</td>
<td>정의란 무엇인가</td>
<td>마이클 섬델</td>
<td>김영사</td>
</tr>
<tr>
<td>19</td>
<td>존재와 무</td>
<td>장 폴 사르트르</td>
<td>살림출판사</td>
</tr>
<tr>
<td>20</td>
<td>죽음에 이르는 병</td>
<td>키에르케고르</td>
<td>비전북</td>
</tr>
<tr>
<td>21</td>
<td>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td>
<td>니체</td>
<td>웅진씽크빅</td>
</tr>
<tr>
<td>22</td>
<td>통섭</td>
<td>에드워드 윌슨</td>
<td>사이언스북스</td>
</tr>
<tr>
<td>23</td>
<td>항연</td>
<td>플라톤</td>
<td>이제이북스</td>
</tr>
</tbody>
</table>

- 74 -
<table>
<thead>
<tr>
<th>연번</th>
<th>서명</th>
<th>저자</th>
<th>출판사</th>
</tr>
</thead>
<tbody>
<tr>
<td>1</td>
<td>관춘수필</td>
<td>이문구</td>
<td>문학과지성사</td>
</tr>
<tr>
<td>2</td>
<td>광장</td>
<td>최인훈</td>
<td>문학과지성사</td>
</tr>
<tr>
<td>3</td>
<td>구운몽</td>
<td>김만중</td>
<td>문학동네</td>
</tr>
<tr>
<td>4</td>
<td>나록</td>
<td>박완서</td>
<td>민음사</td>
</tr>
<tr>
<td>5</td>
<td>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td>
<td>조세희</td>
<td>커뮤니케이션북스</td>
</tr>
<tr>
<td>6</td>
<td>당신들의 전 국</td>
<td>이정준</td>
<td>문학과지성사</td>
</tr>
<tr>
<td>7</td>
<td>도리언 그레이의 초상</td>
<td>오스카 와일드</td>
<td>열린책들</td>
</tr>
<tr>
<td>8</td>
<td>돈키호테</td>
<td>미구엘 드 세르반테스</td>
<td>시공사</td>
</tr>
<tr>
<td>9</td>
<td>마당 깊은 집</td>
<td>김원일</td>
<td>문학과지성사</td>
</tr>
<tr>
<td>10</td>
<td>망진 신세계</td>
<td>울더스 혁술리</td>
<td>해원출판사</td>
</tr>
<tr>
<td>11</td>
<td>무정</td>
<td>이광수</td>
<td>재승출판</td>
</tr>
<tr>
<td>12</td>
<td>무진기행</td>
<td>김승옥</td>
<td>범우사</td>
</tr>
<tr>
<td>13</td>
<td>변신</td>
<td>프란츠 카프카</td>
<td>더난출판사</td>
</tr>
<tr>
<td>14</td>
<td>사반의 십자가</td>
<td>김동리</td>
<td>계간문예</td>
</tr>
<tr>
<td>15</td>
<td>세익스피어 4대 비극</td>
<td>세익스피어</td>
<td>시공사</td>
</tr>
<tr>
<td>16</td>
<td>수상록</td>
<td>몽테뉴</td>
<td>육문사</td>
</tr>
<tr>
<td>17</td>
<td>신곡</td>
<td>단테</td>
<td>동서문화사</td>
</tr>
<tr>
<td>18</td>
<td>아Q정전</td>
<td>루쉰</td>
<td>문학동네</td>
</tr>
<tr>
<td>19</td>
<td>오이디푸스</td>
<td>소포클레스</td>
<td>민음사</td>
</tr>
<tr>
<td>20</td>
<td>월든</td>
<td>헨리 데이빗 소로우</td>
<td>은행나무</td>
</tr>
<tr>
<td>21</td>
<td>위대한 개츠비</td>
<td>F. 스콧 피츠제럴드</td>
<td>문학동네</td>
</tr>
<tr>
<td>22</td>
<td>위대한 유산</td>
<td>찰스 디킨스</td>
<td>북로드</td>
</tr>
<tr>
<td>23</td>
<td>이방인</td>
<td>알베르 까뮈</td>
<td>부록스</td>
</tr>
<tr>
<td>24</td>
<td>인도로 가는 길</td>
<td>E. M. 포스터</td>
<td>열린책들</td>
</tr>
<tr>
<td>25</td>
<td>인형의 집</td>
<td>헨리크 입센</td>
<td>민음사</td>
</tr>
<tr>
<td>26</td>
<td>젊은 예술가의 초상</td>
<td>제임스 조이스</td>
<td>느낌이있는책</td>
</tr>
<tr>
<td>27</td>
<td>주홍글씨</td>
<td>호손</td>
<td>브라운힐</td>
</tr>
<tr>
<td>28</td>
<td>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td>
<td>밀란 쿤데라</td>
<td>민음사</td>
</tr>
<tr>
<td>29</td>
<td>카라마조프 형제들</td>
<td>도스토옙스키</td>
<td>동서문화사</td>
</tr>
<tr>
<td>30</td>
<td>칼의 노래</td>
<td>김훈</td>
<td>문학동네</td>
</tr>
<tr>
<td>31</td>
<td>토지</td>
<td>박경리</td>
<td>마로니에북스</td>
</tr>
<tr>
<td>32</td>
<td>파우스트</td>
<td>괴테</td>
<td>음유문화사</td>
</tr>
<tr>
<td>33</td>
<td>호밀밭의 파수꾼</td>
<td>제롬 해결드  샌린저</td>
<td>하서출판사</td>
</tr>
<tr>
<td>34</td>
<td>호질,양반전,허생전</td>
<td>박지원</td>
<td>범우사</td>
</tr>
<tr>
<td>35</td>
<td>흉복</td>
<td>최명희</td>
<td>한길사</td>
</tr>
<tr>
<td>36</td>
<td>황석영(객지)</td>
<td>황석영</td>
<td>장비</td>
</tr>
</tbody>
</table>
## 예술

<table>
<thead>
<tr>
<th>연번</th>
<th>서명</th>
<th>저자</th>
<th>출판사</th>
</tr>
</thead>
<tbody>
<tr>
<td>1</td>
<td>문학과 예술의 사회사</td>
<td>아르놀트 하우저</td>
<td>창비</td>
</tr>
<tr>
<td>2</td>
<td>베토벤의 생애</td>
<td>로맹 풀랑</td>
<td>문예출판사</td>
</tr>
<tr>
<td>3</td>
<td>서양미술사</td>
<td>에른스트 골브리치</td>
<td>예경</td>
</tr>
<tr>
<td>4</td>
<td>예술로서의 영화</td>
<td>랐프 스티븐슨</td>
<td>영화당</td>
</tr>
<tr>
<td>5</td>
<td>예술이란 무엇인가</td>
<td>레프 풀스토이</td>
<td>신원문화사</td>
</tr>
<tr>
<td>6</td>
<td>한국의 미 특강</td>
<td>오주석</td>
<td>술</td>
</tr>
</tbody>
</table>

## 사회과학

<table>
<thead>
<tr>
<th>연번</th>
<th>서명</th>
<th>저자</th>
<th>출판사</th>
</tr>
</thead>
<tbody>
<tr>
<td>1</td>
<td>감시와 처벌</td>
<td>미셸 푸코</td>
<td>나남출판</td>
</tr>
<tr>
<td>2</td>
<td>국부론</td>
<td>애덤 스미스</td>
<td>비봉출판사</td>
</tr>
<tr>
<td>3</td>
<td>국화와 칼</td>
<td>루스 베네딕트</td>
<td>음유문화사</td>
</tr>
<tr>
<td>4</td>
<td>군주론</td>
<td>니콜로 마키아벨리</td>
<td>까치글방</td>
</tr>
<tr>
<td>5</td>
<td>도덕적 동물</td>
<td>로버트 라이트</td>
<td>사이언스복스</td>
</tr>
<tr>
<td>6</td>
<td>리바이어던</td>
<td>흐스</td>
<td>서해문집</td>
</tr>
<tr>
<td>7</td>
<td>법의 정신</td>
<td>몽테스키외</td>
<td>동서문화사</td>
</tr>
<tr>
<td>8</td>
<td>불평등의 대가</td>
<td>조지프 스티글리츠</td>
<td>열린책들</td>
</tr>
<tr>
<td>9</td>
<td>생각의 탄생</td>
<td>로버트 루트번스타인</td>
<td>에코의서재</td>
</tr>
<tr>
<td>10</td>
<td>세계전쟁사</td>
<td>존 키건</td>
<td>까치</td>
</tr>
<tr>
<td>11</td>
<td>소유냐, 존재냐</td>
<td>에리히 프롬</td>
<td>까치</td>
</tr>
<tr>
<td>12</td>
<td>에밀</td>
<td>루소</td>
<td>미네르바</td>
</tr>
<tr>
<td>13</td>
<td>엔트로피</td>
<td>제레미 리프킨</td>
<td>세종연구원</td>
</tr>
<tr>
<td>14</td>
<td>유도피아</td>
<td>토피스 모어</td>
<td>응진씽크빅</td>
</tr>
<tr>
<td>15</td>
<td>일차원적 인간</td>
<td>헤르베르트 마르쿠제</td>
<td>한마음사</td>
</tr>
<tr>
<td>16</td>
<td>자유론</td>
<td>존 스튜어트 밀</td>
<td>팽귄클래식코리아</td>
</tr>
<tr>
<td>17</td>
<td>제3의 물결</td>
<td>앨빈 토폴러</td>
<td>홍신문화사</td>
</tr>
<tr>
<td>18</td>
<td>총,군,쇠</td>
<td>재레드 다이아몬드</td>
<td>문학사상사</td>
</tr>
<tr>
<td>19</td>
<td>페다가지</td>
<td>파울로 프레리</td>
<td>그린비</td>
</tr>
<tr>
<td>20</td>
<td>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td>
<td>막스 베키</td>
<td>플빛</td>
</tr>
</tbody>
</table>
2018 ‘Book등음’ 백서

2019 년 3 월 29 일 발행

발행인 이 병찬
발행처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
편집위원 김 봉세
이 혜경
김경모
윤재중
조성필
정은경
신영진